



성가소비녀회 마르는 예수 · 마리아 · 요셉을 상징한다.
 첫째 기둥 J는 예수(JESUS), 가운데 M은 성모 마리아(MARIA)
 둘째 기둥 J는 요셉(JESEPH)을 형상화한 것이며, 원은 수도 공동체를 뜻한다.
 하느님의 종들로서 구원사업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신
 예수 · 마리아 · 요셉을 본받는 소비녀(小婢女, 작은 여종)들의 삶을 의미한다.

성경과 소명을 사느 이들 소비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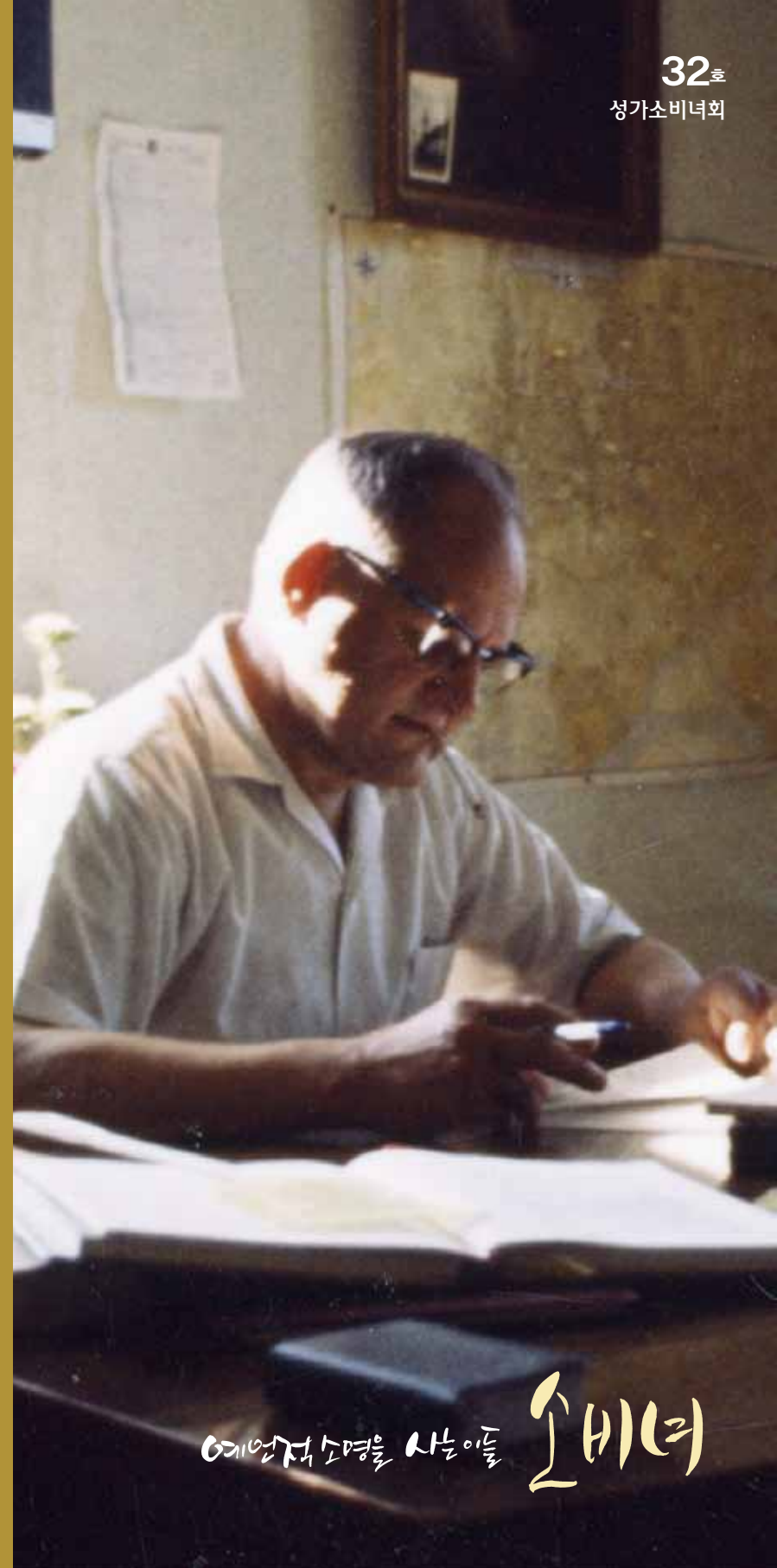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기뻐하라 소비녀

너를 몰라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도 기뻐하라.
 네 정신과 육신이 못생겨도 기뻐하라.
 사람들이 네 뜻을 반대해도 기뻐하라.
 네 뜻이 정해지지 않아도 기뻐하라.
 너를 믿어주지 않아도 기뻐하라.
 너를 말째로 두어도 기뻐하라.
 너를 한번도 참여시키지 않아도 기뻐하라.
 너를 쓰지 않아도 기뻐하라.
 너를 모든 사람보다 중히 여기지 않아도 기뻐하라.
 네게 천한 일을 시켜도 기뻐하라.

小婢女

성경과 소명을 사느 이들 소비녀



설립자의 선종 시간에 멈춘 과종시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 계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강론집 다해55, 가해57)

강생의 시간

한 처음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 시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시간,
70여 년 전 한 선교사가 이 땅의 젊은이들을 모아 성가소비녀회를 시작한 시간,
소비녀들이 세상의 곳곳으로 파견된 시간,
1992년 2월 26일 오전 6시에 멈춘 설립자의 시간,
그러나 소비녀들을 통하여 오늘 지금 여기에서 계속되는 시간,
복음이 전해져야 할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완성되는 이 세상 끝 날까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시간

짜임

Remember 4.16

- 00 꽃을 달아 드립니다_ 수련자
- 00 프랑스 파리에서 기억한 세월호_ 박 나타나엘 수녀
- 00 세월호 아이들과 함께 걸은 순례의 길_ 안 주세피나 수녀
- 00 세월호 우리들의 십자가_ 수련자

세상의 경계에서 외치다

- 00 강정아,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_ 전 사무엘 수녀
- 00 네팔 긴급구조 현장체험기_ 이 프리실라 수녀
- 00 현장을 찍다_ 조 예수의소피아 수녀

소비녀의 강생 현장

- 00 연평 연가_ 이 레나 수녀
- 00 거리의 모퉁이에서 만난 하느님_ 강 예녹 수녀
- 00 개구쟁이 예수네 좌충우돌 공부방_ 박 테레사 수녀
- 00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_ 의정부관구 수련자들
- 00 지구를 살리는 작은 생각_ 인천관구 수련자 이 사도요한

수련원 이야기

- 00 만민에게(Ad Gentes)_ 이아름 바오로 수녀
- 00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_ 성 테레사 수녀
- 00 알퐁소 소비녀의 현장 렉시오_ 전상미 알퐁소 수녀
- 00 모든 이의 해방을 외치는 예언자가 되어_ 김누리 사무엘 수녀
- 00 엄마 밥 하느님 밥_ 이정미 기쁨 수녀



표지 :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신부

이 세상 지으신 하느님 사랑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사랑
이 땅의 가슴 아픈 모든 부모님에게



5월 8일 어버이날,
인천관구 양성소에서 만든 카네이션입니다.
너무도 황망하게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가장 슬픈 어버이날을 맞으셨을
세월호 희생자 부모님들의
가슴에 이 꽃을 달아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기억한 세월호

박 나타나엘 수녀

라디오를 통해 들은 세월호 사건

익숙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식간에 바보 천치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소소한 고통들에 너무나 예민해지는, 그러면서 마치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한 인간인 듯 착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오후, 프랑스 라디오에서 '한국' '배' '고등학생들' 이런 단어들 들었다. 열린 컴퓨터를 켜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현지 시간으로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고, 가라앉아가는 배 주변에 구조하러 모여든 것으로 보이는 배들이 여러 척 보였다.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잃는 이들도 몇몇 생기겠지만, 다행히 다 구조되겠지...' 그렇게 사건을 가볍게 넘기고 있었는데, 이를 뒤 다시 프랑스 라디오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물속에 있다는 보도를 듣고 나서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변의 세상은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생각해보면 프랑스에 있지 않았다면, 성격상 나는 무슨 일이라도 했을 거고, 그랬기에 세월호 참사를, 아니 세월호 학살을 마치 천안함 사건을 잇듯이, 삼풍 백화점 사고를 잇듯이 그렇게 잇게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정말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에, 미친 사람처럼 어디서든 불쑥 불쑥 솟아올라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 사실 너무도 소중한 한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고 힘들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불의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것은 도저히 잇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이제는 알아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매일 미사 중에, 일상의 작은 봉헌 속에 바치는 걸로 조금씩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1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내어 무슨 자리든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잠시 잊고 있었다. 그러다 세월호 추모와 관련한 소식을 찾아달라는 친구수녀의 부탁을 받고 나서야, 더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찾아 나섰다. 3월 말, 아직 그 어디에도 추모 행사나 모임에 대한 공지가 올라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그 아이들이, 그 희생자들이, 그 유가족들이 잊혀지는 게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다가 '미사'를 하고 싶은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 간절하게 올라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사제들과는 전혀 교류가 없었던 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더 며칠을 서성였던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신부님으로부터 안부메일이 왔다. 그는 한국말을 하지만, 한국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확신했다. 그가 이 미사를 집전하도록 하느님이 미리 정하신 사제임을…!

망각의 어둠에 함몰되지 않기 위하여

고백하자면, 여기에서 외국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자들이나 사제들은 자칫하면 자기 신분을 잊기가 쉽다. 사실 1~2년만에 외국어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모국어로 신학서적을 읽어본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동반한다.

스물일곱 살에 한국에 와서 평생을 거기서 살면서도, 늘 언어가 어려웠고, 위장병을 달고 살아야 했던 설립자의 고통은 전혀 유별난 것이 아니었다. 그래, 어쩌면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고통 앞에 자신 안으로 숨어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수도자들이나 사제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익숙하고 소중한 것들을 떠나 지금, 여기로 파견되어 왔는가?"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 의식 없이, 나의 고통, 나의 모지람, 나의 병약함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거야말로 하느님의 '아름답고도 위대한 봉헌으로의 초대'를 한낱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어두운 시간을 통과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대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더 캄캄하고 더 고요한 감실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나?" (요한 21,23) 사실 그랬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나의 성취와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기서 이려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 사제에게 답장을 하고,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만남이 끝나갈 무렵 우리의 작은 소망을 이야기했고, 그는 흔쾌히 미사집전을 승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파리외방 전교회의 지하 소성당, 순교자의 방이라고 불리는 장소까지 잡아주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 사제가 바로 그 집의 책임자인 홍세안 미셀 신부님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신부님이 성 신부님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틈만 나면 신부님을 괴롭히곤 했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우리나라 오는 일을 할 때 참 행복을 느낀다'는 말을 체험으로 실감하게 되면서 모든 행동의 템포를 늦추고 있었다. 직감에 충실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나로서는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 행복을 누릴 기회를 다 빼앗았었고, 늘 그 행복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이를 만나고 나서야 멈추게 되는 체험을 하는 중이었다. 그랬기에 신부님은 오랜만에 당신이 먼저 안부를 물어 오신 거였고, 당신 역시 세월호 참사를 가슴아파하며 글까지 쓰셨다며 그 글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미사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되어져 있었다. 문제는 함께 미사에 참석해줄 사람들. 프랑스 파리 주변부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세월호를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한인본당은 한인본당대로, 한국 수도자들과 사제들은 그들대로 각자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차마 그들에게 이 미사의 소식조차 전하기가 어려웠다. 사실 연락처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한국 사제들이 최소한 10명 이상 살고 있는 그 집 지하 성당에서 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알리지도 않는다는 건 나로서는 못할 일이었다. 찾아보니 다행히 고해성사때문 알게 된 한 사제의 연락처가 있었고, 그 사제를 통해 파리와 그 주변부의 사제들, 신학생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수도자들에게 메일을 보냈고, 그렇게 우리는 모였다.

세상 어디에 있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2015년 4월 16일 오후 3시, 파리 외방전교회 순교자의 방에서 세월호 참사(학살이라 쓰고 싶었으나, 꼭 참으며)로 희생된 사람들과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조촐한 미사가 진행되

었다. 나에게 있어 304명의 희생자들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 학살당한 순교자들이었기에, 설립자 신부님과 같은 젊은 선교사제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아시아 각국으로 파견되는 예식을 했고 또 그 순교자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순교자의 방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주간에 1년간의 신학입문과정 중 처음이자 마지막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미사를 하기로 한 당일도 오전부터 밤까지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전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우왕좌왕하다가, 하루 전날엔가 답장을 보내온 분들께 보편지향기도를 부탁했다. 신기하게도 방안을 뒤져보니 1월에 다녀간 한 여행자가 사람들이 안 받는다면 슬픈 얼굴로 내게 남겨 두고 간 '진실을 인양하라' 스티커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 미사는 그분 친히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였다. 나는 다만 그가 준비해 놓으신 '여기'에 우연하게 '있었을' 뿐이었다.

미사전날 그토록 허무하고 어이없게 희생된 꽃 같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듯 손 글씨로 써서 준비를 했고, 입당성이 대신 그들의 소중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렀다. 4월 16일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강론을 들었다. 희생된 이들과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기도과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며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기억했고,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 되어버린 한국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 보편



지향기도를 바쳤다. 마지막으로 계속 기도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불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보낼 메세지들을 남겼다. 마음으로 늘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증거의 의미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꽃을 봐도 아이들이 생각나고, 비가 와도 아이들이 생각나고, 햇살이 눈부셔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이들이 지구 저편에도 몇 명쯤은 있다고... 그냥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정신없는 일상에 며칠 물어두었던 메세지와 기도들은 하나는 팽목항으로, 하나는 안산 416 가족 협의회로 부쳐졌다.

사실 나는 많이 분개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느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삶을 봉헌했다는 사람들마저 자신의 고통 안에만 갇혀 있을 수가 있는지, 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게 어떻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자기 주변인들의 영육간의 무사태평을 위해서 일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 중에 나도 끼어있음을 알아차리며 더욱 화가 났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과해 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그 참사가, 그 고통이 나를 비켜갔음에 감사하는 기도나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는지... 나는 사실 온몸으로 분노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아마 내게 한국에서와 같은 체력이, 언어능력이 주어졌더라면, 그 독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을 다치게 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내 안의 열정이 넘쳐난다는 것만으



Remember 4.16

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는 확신 속에 무수한 사고들을 쳤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 그분은 나의 무릎을 꺾으셔서, 겨우 존재할 수 있을 만큼의 힘만 주셨고, 나날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마주하는 것을 매일의 양식으로 주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마치 내 아이가 그렇게 사라져간 것처럼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함께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보았다. 그분은 당신이 원하실 때에는 누구라도 '예' 할 수 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아울러 섭리하신다는 것을. 아무도 소리쳐 외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 당신 친히 당신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희망하는 것은 "기억의 힘"이다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다시 초대를 받을 만한 사람들만을 초대하면서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자화자찬의 언어로 포장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봉헌했다는 수도자들이며 사제들인 우리의 기도마저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의 몇몇 사람들의 건강과 성과를 위해 바쳐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인가? 더구나 우리는 자신의 고통 앞에서 '아름답게 변모하고 있는', 하늘의 별이 된 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엄청난 고통 이후에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부활의 모습을 나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희망하고 있는 남겨진 가족들에게서 발견한다. 적어도 그들만큼이라도 하느님과 세상을 위해 자신을 위해 가던 길을 접고, 길을 떠나왔다는 내가, '가난한 이들의 하녀'라는 이름을 운명으로 받은 내가, 내 삶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되물을 뿐이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물음 속에 희미하게 함께 타오르는 작은 불빛은 '기억의 힘'이다. 고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깊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멀리 떠나 있기에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에 속지 않고 '본질'을 희망할 수 있도록 초대됨을 느낀다. 아무리 거리에 나가 외쳐도 꿈쩍하지 않는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도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들과 그들이 함께 흘리는 눈물의 말없는 약속들을 그리고 그 고통 안에 가장 깊숙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바라본다.

그렇기에 나 역시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로마 8,24)라고 고백한다.





세월호 아이들과 함께 걷은 순례의 길

안 주세피나 수녀



8월 4일~5일 1박 2일을 승현·웅기 아버님들과 함께 도보 순례에 참석하기로 했다.

본당 신부님과 신학생과 함께 7시 버스를 의정부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였다. 의정부에서는 비가 그칠 것 같았는데, 내려 갈수록 비가 추적대며 내리고 있었다.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한데 비마저 내리는 것이 하느님도 함께 슬퍼하시나?

광주 남평동 성당에 도착하니 어제 함께 도보하신 분들이 아침식사를 하시고 출발 준비를 하고 계셨고, 일행 중에 문 규현 신부님께서 반갑게 맞이 해주셨다. 출발 전에 기도를 하고 승현이 아버님께서 인사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어 감사하다” 고 하신다. 아침 식사를 하신 분이 70명 정도 된다고 주임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평 성당을 출발하여 걷다 보니 100여명으

로 늘어나고 있었다. 내리는 빗속에서도 웅기·승현이의 아버님들은 우비도 우산도 없이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속에 깊이 묻고 무거운 십자가를 가슴에 꼭 안고 자식의 사진을 목에 걸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내가 동행하는 이 길이 아버님들 마음 안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하는 길...

팽목항에도 16시간을 달려 다녀왔지만, 두 아버지의 마음 안에 맺힌 아픔과 한을 가득 짊어진 아버지들의 마음은 성모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계실 때 그 마음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두분의 아버지를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하듯이 손에 묵주를 들고 기도하며 걸었고, 한참을 가다 옆에 걷고 있는 9살 글라라를 만나게 되었다. 엄마 따라 걷고 안산에서 왔다고 하는데,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며 걷다가 엄마한테 업혀 걷기도 하면서 끝까지 함께 한 글라라...

이 모든 분들의 순례길이 척박한 세상에 작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마음을 담아 기도로 봉헌하며 고통의 신비를 체험한 길이었다. 순례의 길에는 옥 주교님께서 방림성당까지 함께 하셨고, 많은 신부님들께서 동행하시면서 안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 멈춰선 자동차를 향해 깊은 절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 휠체어와 전동차를 타고 함께 하는 장애우들, 길가에 나와서 응원을 해 주시는 시민들, 14Km를 걷고 나니 방림동 성당에 도착하여 오늘은 두 아버님들이 씻고 방송뉴스를 보고싶다고 하여 아버님들께서 모처럼 만에 모텔에 투숙하기로 하였다.

8월 5일 화요일의 여정은 방림성당 → 금남로 → 임동성당 → 장성(신창초교)까지이다.

방림동 성당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하여 장성 성당 도착 예정. 방림동 성당 신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하였고, 지나가는 지역에서도 합류를 하면서 함께 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한 여정이었다. 300여명 쯤. 어제와는 다른 뜨거운 날씨로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 줄~ 흐르는데, 쉬는 시간이면 담배를 연신 피워대시는 두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움과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왔다. 쉬는 시간에(20~30분)도 쪽잠이라도 편히 주무시면 좋으려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뒤척이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아버님들이 이 길에 나선 이유는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부모님들이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기 위함이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져야 하건만, 누구 한 사람 “책임 있다.”하는 사람 없고, 꿈쩍도 하지 않는 정

부!!! 자식의 장례를 치르게 한 그들이 지지 않는다면 유족인 내가 짊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는 아버님의 말씀 속에서 말을 잃어버린다. “아이를 잃고, 죄책감에 괴로워 몸부림치다 십자가를 지고, 2000리 길을 걷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에 매우 야속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희망을...”라는 인사 말씀 속에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장성을 향하여 가는 도중 터널을 지날 때 희망(빛)이 보여 희망을 갖고 걷는데 끝없이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한 가지에 몰두를 하면 자살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기도 하였다. 두분의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희망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걷는 여정을 알 것만 같다. 하느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기도와 응원의 힘으로 교황님 잘 만나서 교황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 받으시고 교황님의 방문이 침묵하는 우리 정부에게 입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가족들이 이제는 단식하지 않고 속절없이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진실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희생자들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틀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하느님께 감사 드린다.

세월호, 우리들의 십자가

수련자 김 도로시데이, 최 바오로, 황 예수아 수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우리는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산 분향소와 유가족 천막에 다녀오고, 광화문 세월호 미사에 참례하고, 팽목항에도 다녀오고, 옷마다 세월호 뱃지를 달고, 엄마 이야기 공방에 가서 함께 브로치도 만들고, 치유공간 이웃에 들리기도 하고, 성시간과 미사와 성무일도, 9일기도로 끊임없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미사 때마다 신부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세월호에 희생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겨우 17년을 살고 간 그들의 꽃다운 삶의 이야기에 목이 메어 가장 뜨거운 참회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없지만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과 함께 한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의 꿈을 하늘로 보내다.(2015. 성모의 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가까워오던 사순시기, 우리 수련자들은 세월호를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바치기로 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러한 참사를 빚게 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되짚어보는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찰을 바탕으로 십자가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마다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아이들의 꿈이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한 그 꿈을 하나 하나 담은 별을 만들고, 십자가 대신 세월호 배를 들고 십사처를 걸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희심을 통하여 희생자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세월호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형선고

세월호, 그 배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올라서는 안 될 배였고, 떠나서는 안 될 길이었습니다. 죽음이 예비 된 출발, 침몰은 기정사실이었고, 구조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세월호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관련자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걸 잘못된 출발이라고, 이래서는 모두가 죽게 된다고 그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더라면, 자기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렸더라면 세월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모두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칠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셨습니다.

이 시대, 저희가 불의를 저지르는 세상을 거슬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 짐

세월호는 십자가였습니다. 세월호는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을 세월호라는 십자가에 매단 그 목숨 값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과 감추려는





평북항 십자가에 기억의 리본을 달다.(2015)

사람들의 싸움... 죽음과 생명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은폐하고 덮어버리지 못하게 하도록,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월호가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이고, 세월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 무죄한 이들의 희생을 통해 죄지은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칠 때를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월호는 하느님 구원사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감내 하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이유를
저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죽음을 통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하고 새롭게
쇄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소서.

첫 번째 넘어짐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오히려 첫 번째로 배를 버리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점점 기울어지고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그래도 해경이 오고 있다고 희망하고 안심하는 그 어린 생명들을 두고 아무런 구조작업도 없이 그냥 돌아선 해경들은 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선장이라면, 선원이라면 해경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그들이 했습니다. 국가는 모든 책임을 선장과 선원, 해경들에게 묻고 그들을 처벌하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실상 이 사고의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마다 자신에 주어진 직분과 책임과 사명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의 정의는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사순절 십자가의 길 기도(2015)

어머니와의 만남

세월호 어머니들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를 기억해주지 않느냐고 점점 잊혀져가는 있는 현실에 절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먼저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야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어머니들은 직접 자수를 놓아 새로운 세월호 브로치를 만들고 계십니다. 한 아버지가 어머니들이 계신 컨테이너 공방에 떡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신 채 떡 한 접시를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어머니들은 이내 “아.. 오늘 00반 000 생일이야.” 하십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님들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000엄마 요즘 안보여?”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데..?” 하며 안부를 챙기십니다.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이 서로 의지하며, 서로 보듬는 모습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함께(2015)

예수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제 저희가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시몬의 도움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원고 교감 선생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는 것을 가르쳤던 그는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학생들과 함께 선내에서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기에 자신 또한 그렇게 사는 방법 밖에 몰랐고 그렇게 행동했던 단원고 교감 선생님은 아이들을 대피시키지 못한 채 혼자 살아남은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도와 십자가를 진 시몬이 되지 못한 죄책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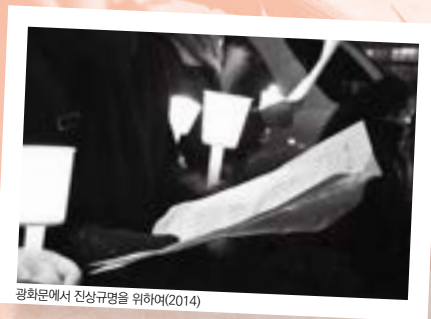
예수님,
여전히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진 고통 받는 이웃들,
억울한 사람들,
버림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소서



평북항에서 바치는 십자가의 길 기도(2015)

베로니카의 수건

이웃의 고통스런 현실을 자신들의 소명과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소리를 내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이들,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 없었던 이들의 뜨거운 연대가 세월호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광화문 길거리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성체의 식탁을 차리는 정의구현 사제단. 평북항에서 실종자 가족과 함께 하는 신부님들, 신자들, 하루 일과가 끝나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광화문으로 안산으로 현장으로 달려오는 참 아름다운 젊은이들, 정치적이라고 종북이라고 색깔을 운운하는 세상이 그 빨간 눈으로 그들을 질시하지만 오직 절박하고, 힘없고, 나약한 이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그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향하는 길 위의 의인들,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진상규명을 위하여(2014)

예수님,
세월호 피해자들의 피땀과 눈물이
당신의 빵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데,



세월호 참사 1주기 미사(2015. 4. 16)



안산 단원고 앞에서 평북항으로 떠나는 순례길 배웅(2014)



별이 된 아이들의 꿈을 노란 배에 인양하다.(2015. 상시간)

당신이 길 위에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있을 수 없어 거리로 나간
이 시대의 참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두 번째 넘어짐

예수님,
진실을 감추고, 정의를 행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선의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어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 지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용기와 의지를 저희에게 주소서.

얼마 전 다이빙벨 영화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든 도와주고 싶은 뜨거운 심장으로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찾아온 이종인씨, 그를 가로막은 것은 위협하고 거친 바다가 아니라 그 무엇도 못하게 막고 모든 것을 감추려는 권력의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울먹이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2014. 성모의 밤)

그의 목소리, 그 묵직한 분노를 지켜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조와 인양 작업에 헌신했던 민간 잠수사들, 봉사자들, 온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지지하기보다 오히려 방해했던 그 어둠의 힘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를 두 번째 넘어지게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위로

‘우리는 버려진 것 같다’ 세월호 사고 뒤 희생자의 언니 오빠들의 목소리입니다. ‘부모님들은 거리에 나가 있고, 희생자들의 동생들은 어리니까 대학생 이상의 언니 오빠들은 자연스럽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들도 힘든데, 누구도 ‘괜찮냐’고 묻지 않습니다. 평범한 고2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와 생존학생으로 불려집니다.

생존학생들은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생각할 때 마다 먹고, 자고, 웃고 떠드는 평범한 모든 일상들이 죄짓는 일 같이 느껴집니다. 혹시 거리에서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이제 괜찮아져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단원고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18살 소년 소녀들, 사고 전처럼, 평범한 고2학생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 위에서도 예루살렘 부인들에게
위로를 주심과 같이
고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희생자들의
형제자매와 생존 학생들을 돌보시어 위로하여주소서.



세월호 참사 1주기 미사(2015. 4. 16)

세 번째 넘어짐



세월호 인양을 기원하며(2015. 성시간)

지금 이 순간도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
당신의 비틀거리는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이 시대의 불의 앞에서
저희가 물러서거나 비켜가는
비겁함을 선택하지 않게 하소서

어버이연합, 대수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는 미명아래 사실은 자기들만의 안위와 이권을 지키려는 이기심을 감추고 있는 그들의 미성숙한 행동과 폭언은 세월호 피해자들을 세 번째 넘어지게 하는 폭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걸림돌이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소, 지겹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그동안 정신없이 지내다가 사랑하는 자식의 부재를 구체적인 삶으로 느끼는 세월의 유가족에게는 이제 막 시작인데 그들은 그만 끝내고 잊자고 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이 시대의 차가운 시선은 상처 입은 이들을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듭니다.

웃 벗김 당함

그날그날 있었던 게시물 중 가장 재미있는 게시물이라는 뜻을 가진 ‘일간 베스트’ 라는 인터넷 사이트, 단지 주목받고 싶다는 이유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쉽게 모욕하는 그들은, 이 시대가 감추고 있는, 병들고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 앞에서 단채로 피자과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익사해 물고기 밥이 됐다’는 뜻으로 어묵을 먹는 사진을 올려놓고 깔깔댑니다.

예수님,

세월호 희생자들과 함께 또 다시 옷 벗김 당하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받고 계신 당신 앞에 용서를 청합니다.

일말의 양심도 도덕성도 없는 세상을 만든 책임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시대를 사는 저희 모두를 용서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힘

아직도 세월호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려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배가 45도 기울었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한 후,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조은화님,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허다운 님, 음악을 좋아했던 남현철 님, 뽕박질을 잘했다던 박영인 님, 학교 뒷산에 사과나무를 심던 사람이었던 양승진 님, 고슴도치 머리라 "또치쌤"으로 불렸던 고창석 선생님, 네 살짜리 여동생에게 자신이 입었던 구멍조끼를 벗어서 건네주었던



세월호와 함께 수장된 아이들의 꿈, 꿈과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타임캡슐 타임캡슐은 기억의 나무 밑에 묻다. (2015. 성모의 밤)



Remember 4.16

권혁규 님, 어린 딸에게 무등을 태워주기로 약속했던 권재근님, 제주에서 아들과 함께 살려고 이사를 가던 이영숙님...

예수님,

실종자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세월호가 인양되지 못하는 한,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십니다.

단 한 순간도 견디기 힘든 호흡곤란과 탈수 증세와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계십니다.

숨을 거두심

세월호 안에서 304명이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진실, 인권과 존중받아야 할 모든 생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족을 바다에 수장시킨 것입니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우리 모두는 희생자들이 왜 그렇게 죽어가야 했는지 이유를 밝히는 일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 생활과 목숨을 건 규명 노력을 통해서 고통은 당하더라도, 그래도 하느님의 선인들과 함께 일어나서, 우리 민족이 진실 위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한 거대한 밑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사회의 치부와 병폐, 안전 불감증을 직시하고 정화하며

전환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주시며,

불의의 무덤에서 정의를 일으키시고,

어둠에 빛을 밝히소서.

십자가에서 내려짐

안산에 위치한 '치유공간 이웃'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의 생일파티가 열립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학생의 삶을 돌아보며, 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전의 여러 이야기들을 모으며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복원된 학생의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종환 시인은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직접 시를 씁니다. 마치 학생이 아이 곁에서 직접 말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살다갔지만 참 잘 살았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다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이의 일생을 자세히 바라보니, 웬지 모를 충만함과 벅찬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생전에 함께 했을 때보다 더욱 더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일파티에 함께 참여한 가족과 친구 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 그들이 희망을 지니고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무덤에 묻힘

죽은 아이들은 별이 되었다고 우리는 늘 말해왔습니다. 흐리고 불투명한 지금의 세상처럼 세월호의 항로는 여전히 캄캄하기만 합니다. 저 희미한, 그러나 세세한 별들을 헤아리며 아이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는 4월, 봄이 왔습니다. 정말이지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길수록 그들은 빛나고 항로가 없어도 그들을 길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회심과 봉헌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회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일상 작은 기도로써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끊임없이 투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끝났지만 그날 이후 한 동안 제대 앞에 놓인 세월호 노란배와 아이들의 꿈이 담긴 별을 치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매일 미사 때마다 아이들의 꿈 곁에 촛불을 하나씩 밝히며 우리는 4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성모의 밤을 준비하며 수련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영



세월호 참사 1주기 미사(2015. 4. 16)

원히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못다 이룬 꿈과 동행하겠다는 약속, 다시는 그 꿈이 꺾이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아 영원히 보관하며 기억하기 위한 타임캡슐을 만들었습니다. 성모의 밤에 그 아이들의 꿈을 담은 타임캡슐을 기억의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을, 아이들이 못다 이룬 그 고운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억 투쟁입니다.



강정아,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전 사무엘 수녀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파견

10월에는 절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가을 하늘의 푸르름이 마음에 젖어들면서 삶의 경건함이 올라와 눈물겨워진다. 어린 시절의 그리운 것들과 마음 깊이 미안한 것들이 떠오른다. 3년 전 이맘 때 제주도 강정에 내려가 살벌하게 강행되는 해군기지 공사와 주민들의 억울한 호소를 듣고 올라왔던 날부터 강정에 대한 미안함이 늘 마음 구석에 묻혀 있었다. 마땅히 시간을 내서 내려가야지 말만 하면서 구럼비 밭파와 주민과 활동가들이 투쟁하고 연행당하는 장면을 컴퓨터로 보며 분통을 터뜨리고 애통해할 뿐이었다.

강정마을은 애초 제주해군기지 후보군에도 없던 곳이다. 해군은 2002년에 화순항을 제주해군기지 최적지로 선정하지만 화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2005년에 위미를 선택, 역시 위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자 해군은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을 후보지로 결정한 후 강정 해녀와 강정마을 윤태정 회장과 접촉하였으니, 2007년 4월 26일 마을회장이 긴급임시총회를 소집하여 1000여 명의 주민 중 87명이 모인 가운데 '해군기지 관련 건'을 속전속결로 진행하여 (당시 참석한 40여 명의 해녀들은 이미 해군으로부터 어업보상을 받음) 만장일치 박수로 '강정해군기지 유치의 건'을 통과시키고 만 것이다.

그해 8월 10일에 열린 마을임시총회에서 강정 주민 4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유치 결의를 주도한 강정마을회장이 해임되고, 8월 20일에는 강정마을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강정 주민들은 만 19세 이상 725명이 투표하여 반대 680명, 찬성 36명, 무효 9표로 제주해군기지 유치 반대 입장을 결정하였는데,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과 불목이 깊어진 것이다.

6년 넘게 계속되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과 상처의 골이 깊어지고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연행 소식이 이어지자,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에서는 2013년 10월 21일 윤 마리엘 수녀님과 박 로셀리나 수녀님을 강정마을의 평화지킴이로 파견하였다. 강정의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정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예언자의 자세로 현장에서 평화를 지키는 존재 사도직 파견이었다.



두 수녀님은 강정마을 굴나무가 많은 할머니 집에 세들어 살면서 온 기도와 정성과 힘을 다하여 강정의 고통과 호흡하며 강정인으로 살았다. 5월에 윤 마리엘 수녀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마을을 떠난 이후, 로셀리나 수녀님이 혼자 지내는 동안 양 관구 수녀님들이 자주 강정에 내려가 묵어가면서 기도와 나눔으로 연대를 이루고 있다. 나도 올 10월만큼은 강정의 상황과 1년째 강정인으로 살고 있는 로셀리나 수녀님의 모습을 담고자 4일간의 일정을 계획하였다.

제주 4·3 평화공원에 들러

10월 5일 정오에 제주공항에 도착하였다. 로셀리나 수녀님은 성이시돌 분원에서 월피정 중이라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혼자서 버스 편을 물어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갔다. 6만 여 평의 공원으로 사람들이 흩어져서인지 4·3평화기념관 안에는 관람객이 나 혼자뿐이었다. 킁킁한 동굴로 시작하는 기념관에 혼자 들어가기가 좀 겁이 나서 안내를 부탁했더니 여성 설명원을 붙여주어 1관에서 6관까지 1시간 반 동안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당시 미군정의 정책

실패와 분단체제의 고착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장봉기대와 진압대의 충돌 중 국가공권력에 의해 제주도민들이 무차별 학살된 사건이다. 제주도가 붉은섬으로, 제주도민이 폭도로 불려지면서 인명피해가 한국전쟁 다음으로 극심하여 3만 명 이상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민은 물론 국가에서도 오랫동안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금기시해오다가 2000년대부터 4.3사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에는 4·3희생자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설명원의 할아버지도 가족이 학살당할 때 혼자 도망쳐 겨우 살아남아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있다고 하니 제주도민 10명 중 1명이 죽임을 당하고 연좌제와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진 정신적 피해는 가히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아직도 4.3사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제주도 강정에는 미제국의 동아시아 군사패권 유지를 위한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있으니, 외세와 육지에 짓밟힌 피맺힌 역사 안에서 제주도민의 희생과 공동체의 파괴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해군기지 절대 반대

성이시돌분원에서 피정을 마친 로셀리나 수녀님을 만나 하룻밤을 묵었다. 로셀리나 수녀님은 주말마다 성이시돌요양원이나 성요셉요양원 분원을 찾아가 깊은 기도와 휴식, 공동체와 친교를 나누는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곤 한다.

다음날 아침, 파비올라 수녀님이 이것저것

음식을 챙겨서 강정까지 우리를 편안하게 데려다 주었다. 10평 정도의 셋집은 두 개의 작은방과 좁은 부엌, 창고를 개조한 세면실이 있고 화장실은 뒤쪽에 떨어져 있다. 집을 둘러보는 동안 로셀리나 수녀님은 받은 음식을 부지런히 정리하여 지킴이들과 나누기 위해 배낭에 넣고는 11시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동네 이집 저집마다 '해군기지 절대 반대'라고 적힌 깃발이 높이 꽂혀 나부끼고 있다. 지나가는 집집마다 낮은 굴나무의 초록잎과 노란빛의 굴이 싱그럽다. 지나가다보면 굴러다니는 게 굴이라고 한다. 서귀포에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어느 집을 지나며 현관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뵈자 수녀님이 성큼 들어가 인사를 드린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하고 여주자 제주도 방언으로 시택에 가셨다고 대답하신다. "여기 어르신은 얼마 전에 구속되었다가 나오신 강부언 어르신이에요. 경찰과 대치 중에 할아버지가 속상해서 땅에다 돌맹이를 던진 것을 경찰한테 던졌다고 하여 억울하게 들어가셨어요. 72세인데 징역 6개월 선고받아 3개월 사시고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셨기에 재판에서 다시는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하에 나오셨어요"

강부언 어르신 외에도 그동안 해군기지 불법공사에 맞서 활동하다가 사법처리 된 사람은 600명이 넘고 벌금액도 3억 원에 달하자 부당한 벌금에 맞서 자진노역을 택하는 사람들의 릴레이 노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평화 미사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가 2011년 10월 10일 출범한 이후 매일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생명평화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공사장 정문이 보이자 로셀리나 수녀님이 성호를 긋는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 부딪치게 될지라도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결연함이 느껴진다. 미사 천막은 공사장 맞은편에서 좀더 내려간 곳에 자리잡고 있다. 천막 주변과 맞은편 공사장 벽에는 해군기지 반대의 글귀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천막 안 쪽에서 서각을 하고 계시는 문정현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고 공소회장님이 실어온 제구를 꺼내 미사 준비를 한다. 지킴이들은 천막 옆의 열린 트럭에 올라 앉아서 물을 끓이고 땅콩을

까고 있다. 지킴이들은 나에게 며칠 지낼 거냐고 묻더니 강정에 오래 살 수녀님을 보내달라고 관구장님께 편지를 쓰겠다고 친근하게 웃어 보인다.

천막 안에서 생명평화 미사가 올려지는 동안 문정현 신부님과 예수회 김성환 신부님을 비롯한 수도자, 지킴이들은 공사장 문 앞에 앉아 미사 참례를 한다. 미사는 공사장 문 앞에서 길 위의 신부님이 사랑을 담아 부르는 노래 '일강정'으로 우렁차게 시작된다.

"강정 큰 내가 흐르고 악근천도 곁에 흐르는 아름다운 일강정으로 우리 손잡고 가요.

범섬이 노래하면 썩은섬도 따라 부르는 파도가 춤추는 곳 강정 바다로 가요.

옛부터 물이 좋아 일강정이죠.

함께 손잡고 가요. 평화의 생명의 마을로
옛부터 곱디고운 탐라섬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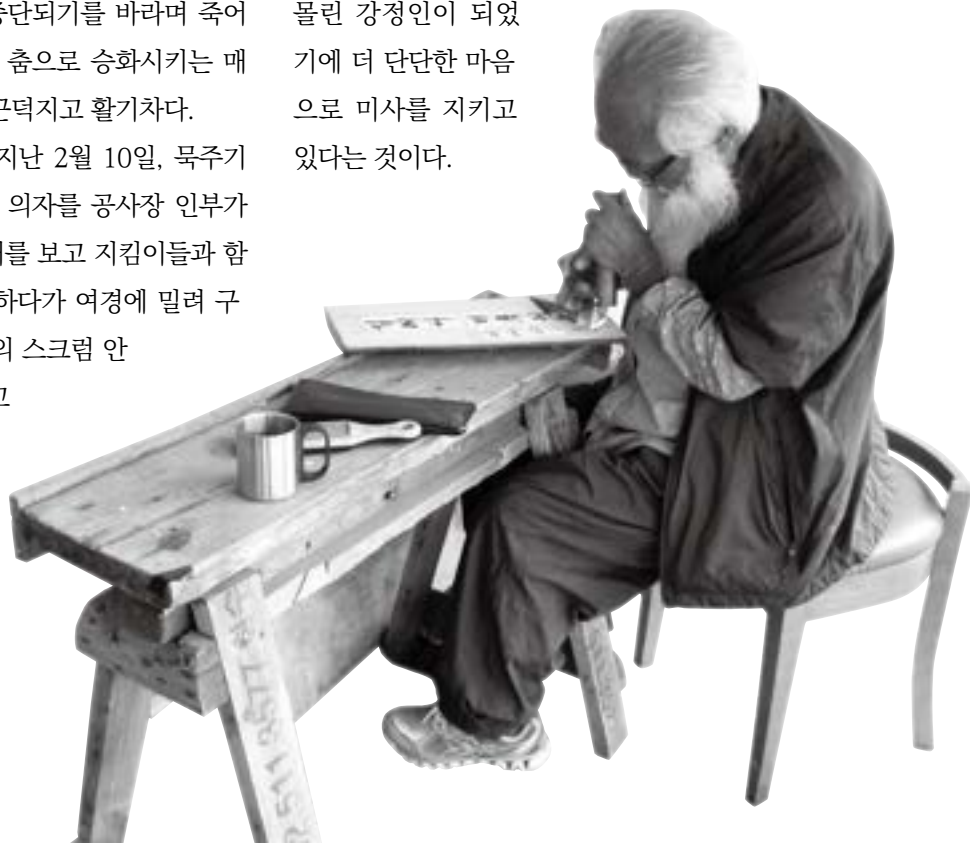
함께 손잡고 가요. 생명의 평화의 섬으로.
생명 평화의 마을로”

공사장 문 앞에서 미사를 하는 중, 갑자기 경찰의 목소리가 속사포로 들려온다. “... 지금 여러분께서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제조치 하겠습니다. 실시!” 그런 다음 경찰과 여경이 줄지어 나와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를 출입문 가장자리로 옮겨놓는다. 기다리던 2.5톤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거대한 공사차량이 굉음과 먼지를 내며 나가고 들어간다. 이렇게 미사와 묵주기도, 인간띠잇기와 춤이 이어지는 2시간 동안 경찰의 고착 행위는 5~6회 반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문 앞에서 온 몸과 정신을 다 해 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죽어가는 생명과 함께 기도하고 춤으로 승화시키는 매일매일의 저항과 연대가 끈덕지고 활기차다.

로셀리나 수녀님은 지난 2월 10일, 묵주기도 중에 김성환 신부님의 의자를 공사장 인부가 폭력적으로 돌려버린 사태를 보고 지킴이들과 함께 사과를 요청하며 항의하다가 여경에 밀려 구석에 고착당했을 때 경찰의 스크럼 안에 갇혀 꼼짝 달짝 못하고 숨만 쉬던 상황이 마치 고문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그 후 3월 31일, 업무방해죄로 찍힌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때는 순간 겁이

나면서 수녀로서 강정에서 살아가는 소임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수녀님은 ‘집회 자유와 집시법’에 관한 책을 구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4월 7일에는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그날 경찰이 사전고지 없이 김성환 신부님을 이동조치한 후 체포하면서 항의하는 문 신부님과 로셀리나 수녀님과 활동가를 연행한 것이다. 수녀님은 잔뜩 긴장한 나머지 몸이 떨렸지만 약한 모습으로 경찰에게 끌려가고 싶지 않아 주님께 강함과 용기를 청하며 당당하게 걸어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였다. 그러면서 나의 전부인 예수님이 2천 년 전 국가내란죄목으로 체포되어 사형당한 사형수였음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잃지 않는 힘이 되어주심을 체험했다고 한다. 연행을 계기로 비로소 범법자로 몰린 강정인이 되기에 더 단단한 마음으로 미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삼거리식당과 강정공소

미사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삼거리식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평화활동가 조약골을 만났다. 조약골은 전국을 돌며 강정마을 투쟁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주의 영혼들’ 상영을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의 영혼들’은 4.3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까지 제주 현대사를 담고 있으며 미국 시카고 세계평화영화제에서 발굴특별상을 수상한 심오한 작품이다.

삼거리식당에 도착하자 종환삼촌이 점심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종환삼촌은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투쟁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천주교평화연대에서 약간의 보조를 받고 있지만 하루 세 끼 무료로 식사를 하는 곳이기엔 곳곳에서 뜻있는 분들이 보내주는 식재료 없이는 식사를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삼거리식당 옆의 강정공소에는 정 잔다르크 공소회장이 거주하고 있다. 매일 아침 7시에 공사장 문 앞에서 생명평화 100배 기도를 올리는 회장은 하루종일 공소 손님들을 맞이하고 굴짬을 만들거나 발농사를 지으며 끊임없이 기도와 활동으로 활기차게 강정을 지키고 있다. 회장님께 로셀리나 수녀님이 강정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짝 물어보았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해주신다. “수녀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가 전례를 맡아서 하기 힘들었죠. 저는 수녀님이 미사 준비, 제의 빨래도 다 알아서 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또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강정마을편집부, 그리고 국제팀에 들어가서 가톨릭에 대한 좋은 강론도 신문에 올리시고... 그리고 수녀님이 너무

나 확신있는 의식으로 공사장 문 앞에 앉아 있어서 큰 도움이 돼요. 수녀님이 여기 와서 튼튼해졌어요. 강정한테 상 줘야 돼요. 사람들이 약할 거라고 하지만, 수녀님은 절대 약한 사람 아니에요. 자존감이 확실하신 분이죠. 인권이라든지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탁 되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역할을 찾아서 지혜롭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정에서 꼭 필요한 분이예요.”

넛길이소, 강정포구

점심을 먹고 예수회 소속 ‘디딤돌 공동체’의 박도현 수사님의 안내로 강정마을을 돌아볼 수 있었다. 박도현 수사님은 김성환 신부님과 함께 2011년부터 강정마을 지킴이로 살고 있으며 작년에 구속되었다가 미결수 구속일 6개월을 채우고 출소한 적이 있는 강정의 최다 연행 수도자이다. 가장 먼저 간 넛길이소는 강정천의 발원지로서 사시사철 푸른 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수사님이 안내하는 곳으로 암벽의 밧줄을 잡고 내려가니 폭포가 떨어지는 에머럴드빛 웅덩이가 보인다. 작지만 아름답고 승엄한 느낌이 들어 조용히 앉아서 물을 바라보며 쉬어가고 싶은 장소이다. 폭포, 암벽, 은어, 깨끗한 물, 네 가지가 길상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는데 네 가지 중에서 은어만 보이지 않았는데 마침 박 수사님 별칭이 은어라고 하니 넛길이소의 명물을 전부(?) 본 셈이다.

넛길이소 옆에는 500년 된 담팔수 나무가 육중하게 서 있다. 나무동치에 걸려있는 얼룩진 형겼끈들이 제사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수사님은 제주의 신들은 사람들이 삶과 밀착되어 인간적인

면모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시며, 해군기지가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갈라지자 신당의 문화나 제사의 문화도 많이 깨져 3~4년 전부터는 제사를 함께 지내지 않게 되어 안타깝다고 하신다. 말없이 서 있는 담팔수 나무도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은 심정일 것 같다.

강정포구에 와서 끝자락에 서니 공사 현장의 전체 범위가 눈에 들어온다. 바다 한 가운데에서 대형 크레인, 중장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수사님이 내게 구럼비 바위가 보이냐고 묻는다. 2년 전부터 발파시키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구럼비 바위가 내 눈에 보일 리 없다. 수사님은 해안선을 따라 잘 보라고 하시며 1.2킬로미터 정도 길게 뻗어나간 화산암 덩어리가 거의 평지에 가깝게 바다에도 내려가 있고 흙에도 묻혀있다고 설명해 주신다. 이곳의 구럼비는 오랫동안 인간하고 어우러져 살아 모가 난 곳이 닳아져 모양새가 아름답다고 하신다.

구럼비 바위가 이어진 중턱 해안은 1996년부터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관리종과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구럼비 바위, 연산호 군락, 붉은발말뚝계, 맹꽂이, 돌고래 등... 연산호가 줄어들면서 주변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의 산란이나 유생체 서식장소도 사라지고 있다. 특히 강정 등대 쪽은 조류가 멈춰서 주변의 소리들이 검붉은 침전물질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항만시설은 자연적으로 깊숙이 들어간 만(灣)에 설치를 하거든요. 강정은 튀어나온 곳(串)이라 바다에 열려 있어서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

을 많이 받게 되므로 실질적인 항구의 기능을 하기 어려워요. 해상에 노출되어 있으니 빨리 파손되고 언젠가 부서지게 되는 거죠. 건설업자야 계속 건설할수록 좋겠지만 국민 세금만 축내는 거죠.”

“클레임이 뭔가를 깨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물으니 2012년 블라벤 태풍 때 7기의 케이스가 파손 되었는데 아직도 깨고 제거하는 중이라고 한다. 케이스는 8층짜리 아파트 건물만한 1만 톤급 이상의 방파제인데 올해도 태풍 너구리가 비쳐가면서 또 3기가 일탈되었다고 한다. 1기를 제작하는데 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2012년에 350억 원, 올해도 150억 원을 바다에 쏟아 부은 셈이다. 앞으로도 태풍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입지조건에서 공사비용이 얼마큼 늘어날지, 군사기지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방파제 앞에는 성 금요일 수난예식 때 지고 온 십자가가 세워져있고, 바다 이쪽저쪽에는 노란페인트로 ‘문정현 신부님 추락당한 곳’, ‘저기에 구럼비 살아 있수다’라는 글씨와 표시가 적혀 있다. 강정포구를 찾는 이들에게 고난과 저항의 현장임을 기억해달라는 당부처럼 느껴진다.

강정천, 멧부리

이번에는 마을 동쪽인 강정천으로 발을 옮겼다. 냇길이소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맑은 물이 너른 바위틈을 지나 절벽대에서 모아져 바다로 힘차게 떨어지고 있다. 강정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멧부리라고 하는데 매의 부리처럼 튀어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바다 쪽에는 아름다



운 주상절리와 범섬이 보인다. 그 옆의 썩은섬은 썰물때 가까운 육지에서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 강정천의 맑은 물은 마을 사람들의 생활수이며 해마다 은어가 알을 낳고 키우는 1~2급수인데 가까운 곳에서 버젓이 공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멧부리에는 2년 전부터 텐트를 치고 해군과 공사업체의 불법공사 현장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멧부리박이라는 분이 살고있다고 한다. 비록 만나는 못했지만 허름한 텐트와 근처에 널려있는 스

크랩 기사가 현장지킴이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멧부리박은 공사를 감시하며 찾아낸 문제들을 마을 신문에 연재하고 있다. 마을토사를 걷어내고 암반을 깨는 모습, 비사면지가 마을로 날리는 모습, 유류창고 공사로 인한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 소음 등을 샅샅이 고발하고 있다. 9월 마을 신문에는 매립작업에 쓰이게 될 펌프준설선의 문제점들을 실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한 마디로 바다의 거대한 진공청소기라고



하면 될 것이다.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빨아 들여 매립지에 빨아들인 그대로를 넣는다. 물이며 작은 플랑크톤, 모래, 자갈, 물고기 심지어 쓰레기까지 죽은 것이나 산 것이나 예외는 없다. 바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바지선에 쓰이는 경유는 저렴한 경유를 쓰다 보니 매연도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배기통이 두 개로 24시간 작업이 끝날 때까지 매연을 발생시키는데 24시간을 몇 달 동안 쉬지도 않고 가동한다. 바다는 쉽게 더 빨리 죽어가는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이 바다를 송두리째 죽음의 바다로 만들 것이다.”

마을신문 <강정이야기>

천막에서 오후 4시 미사가 또 봉헌된다고 하여 서둘러 공사장 문 앞으로 갔다. 월요일에는 각 교구 신부님들이 돌아가면서 오후 미사와 다음날 아침 미사를 주례하시는데 오늘은 수원교구 신부님 세 분이 내려와 연대해 주셨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기도와 식사를 마치고 마을신문인 <강정이야기>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로셀리나 수녀님을 따라 나섰다. 밤마실을 가듯 달빛을 받으며 동네길을 걸어 평화센터에 도착하

자 지킴이 5명이 수녀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정이야기> 10월호에 실을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저마다 취재하거나 써야 할 기사를 배분하는 과정을 보면서 지킴이들과 로셀리나 수녀님 사이에 진한 사명감과 열정이 탄탄한 신뢰로 맺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수녀님은 매월 3번 이상 <강정이야기> 편집회의에 참석할 뿐 아니라 강정 국제팀에서 발간하는 영자신문 발행을 위한 회의에도 매월 3번 이상씩 참석하여 강정마을의 소식을 국내와 세상에 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편집회의에 잠깐 참석하신 박도현 수사님께도 기왕에 로셀리나 수녀님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여 여쭙보았다. “마을 안에 수녀님들이 같이 살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요. 마을과 현장과 지킴이들 안에서도 관대해지는 거지요. 교회를 대표하는 측면도 있고 아무 일도 안 해도 존재론적인 역할인 거예요. 더욱이 수녀님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잘 웃는 모습이라 ... 험악한 현장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모성적인 수녀님이 더 필요한 거지요.”

연민과 참여와 연대

다음날 아침, 로셀리나 수녀님의 하루는 묵상, 기도, 독서와 더불어 어제 있었던 일을 문서로 기록하느라 11시 미사 전까지 조용한 시간으로 이어진다. 노트북 파일에 강정의 일정은 물론, 참석했던 회의 내용과 관련 사진을 목록별로 보기 좋게 정리해놓는 것이다. 지킴이 회의, 마을신문 편집회의, 국제팀 회의, 천주교연대 회의, 컨퍼런스 관련 회의, 재판 현황, 평화 미사 참석자

를 기록하고 페이스북과 신문기사, 강론원고를 작성하면서 사람들이 당장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역사적인 자료로 남기는 과정이기에 힘들지만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11시 생명평화미사 때는 대전과 청주교구 4학년 신학생들이 졸업여행 중이라며 찾아왔다. 미사 전에 문 신부님께서 신학생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나도 귀담아 들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연민의 정이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 가까이 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게 바로 누굴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연민의 정 때문에 행동하는 거지. 연민과 관심이 없다면 그야말로 복음적 가치를 끊고 사는 거야. 연민이 없으면 우리

는 자질이 없는 거야. 연민이 있어야 참여도 할 수 있지. 진짜 몸의 한계도 있고 마음의 한계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연대 아니겠어? 연민과 참여와 연대로서 우리는 직접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우리이지. 그게 우리의 위상이고 정체성이지...”

그렇다. 문 신부님은 하느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연민 때문에 단식, 연행, 옥설, 투옥을 당하면서도 복음의 가치와 생명수호에 매일매일을 투신하고 계신 것이다. 이제는 72세 신부님의 삶이 젊은 신학생들의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가난한 이들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을 쏟는 데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복음의



기쁨 201조)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본다.

그때야말로

강정에서 겨우 4일을 지냈음에도 아직도 전해야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더 이상 지면이 할애되지 않아 여기서 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못 다한 강정 이야기는 직접 강정에 내려가서서 체험하시기 바라는 마음이다. 혹은 마을신문 <강정이야기>를 정기 구독(15,000원)해 주신다면 강정마을을 지키는데 힘과 사랑이 되어 줄 것이다. 문 신부님의 말씀대로 '연민의 마음으로 뉘가를 하는 게 연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로셀리나 수

녀님께 질문 하나를 꺼내본다. “수녀님,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수녀님의 평화지킴이 역할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로셀리나 수녀님이 차분하게 대답한다. “저는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그때야말로 소비녀들이 강정에 정착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사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마을은 더 피폐해지고 공동체는 흩어지고 정신은 더 삭막해질 거예요. 군사기지니만큼 성매매 여성도 생길 거구요. 제가 아니더라도 강정에 소비녀들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건강이 가능하다면 10년이고 계속 있기를 기도해요.”... 배낭을 고쳐 메고 마을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수녀님의 뒷모습이 의연하고 또 아름답다.



네팔 긴급구호 현장 체험기

- 가장 절박한 곳으로

이 프리실라 수녀



“수녀님 어떡하죠? 또 지진이 났대요... 이번엔 7.3”

네팔로 긴급구호 봉사활동을 떠나기 3일전 걸려온 전화였다. 일주일전에 갑자기 네팔에 현장체험을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행정팀의 연락 후, 가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급하게 여권을 만들었다. 항체 형성 기간이 너무 길기에 예방접종도 못한 상태로 사복을 구하러 복지병원에 다녀오다가, 함께 가기로 한 '따뜻한 하루'팀의 대표님에게 받은 전화였다. 이제 정말 위험 지역에 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 많은 두려움도 밀려왔다. 그때부터는 봉사활동을 가기위한 짐을 챙기기 보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방에 있는 모든 짐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렇게 짐정리를 다하고, 나와 데레스 수녀는 따뜻한 하루(비영리 구호단체)와 지구촌 사랑나눔(이주민지원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네팔긴급구호 봉사활동 팀에 속하게 되어 5월 15일~22일 일주일간 네팔로 떠나게 되었다.

5/15(금) 첫째 날	08:00 네팔행 비행기 탑승 14:45 네팔 숙소 도착 15:30 카트만두(Kathmandu) 시내 일대 피해 현장 둘러보기
	- 카트만두 시내 일대에 있는 피해 현장 방문(시내 및 빠슈빠티와 박타푸르 방문)

떠나는 날 아침. 공항에서 우리가 일주일동안 함께 하기로 한 '따뜻한 하루' 팀과 첫 인사를 나누고 구호물품을 싣고 비행기를 탔다. 주님께 우리의 일주일을 맡기는 기도를 하며 7시간 정도 비행을 하니 네팔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카트만두에 있는 숙소까지 차로 이동하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담장이 무너져 벽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건

물들은 균열이 가 있거나 반쯤 혹은 완전히 부서져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텐트나 천막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이였다.

우리가 머물게 된 숙소는 공항에서 30분정도 떨어져 있는 카트만두 시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원래 그 곳은 한국인 주인이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숙소였는데, 그 건물의 주인도 이번 지진으로 태국으로 피난을 간 상태여서 우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먼저 가서 봉사를 하고 있던 지구촌사랑나눔팀은 그동안 현지의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의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가 며칠 전 이 숙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뒤이어 온 우리 팀과 함께 4층짜리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다른 곳에 비해 안전하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머물게 된 숙소도 이번 지진으로 건물에 균열이 가 있었고, 옆집도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

도착 하자마자 잠을 잘 때의 지침을 알려주셨다. 만약의 지진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옷을 입고 자야 하는데, 손이 바로 닿는 곳에 여권이나 귀중품이 담긴 가방을 놓아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왼손에는 여권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의 끈을 잡고, 오른손에는 목주를 잡고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도 하루에 한번 꼴로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긴장감 속에서 잠이 들었고, 끝기도때의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간절하게 드려지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었다.

첫날은 카투만두(Kathmandu) 시내 일대에 있는 피해지역들과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박타푸르(Bhaktapur)의 무너진 현장들을 방문하여 지진의 참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날부터는 차를 타고 아침 일찍부터 이동을 하여 쌀이나 감자 등을 구입하여 나누어주거나 배식을 하고 아동용 신발을 나누어 주는 일과 집을 부수는 일도 하였다.

**5/16(토)
둘째 날**

05:00 성무일도
05:30 예배 및 식사
06:50 하리시디(Harisiddhi)지역으로 이동

- 인근 지역 쌀가게 : 쌀 200포 구입
- 하리시디 지역 : 쌀 5포 배부
- 인근 지역교회 운영 고아원 : 쌀 20포 배부 + 신발 배부
- 티벳 난민촌(Jorpati) : 쌀 100포 배부, 생수 50병 배부 + 급식제공 + 예배
- 고산지대에 위치한 다다가웅(Dada Gaun) : 쌀 75포 배부
- 골동가(Goldhunga) 장애인 마을 : 쌀 25포 배부

네팔에 있는 동안 함께 한 두 팀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 졌었다. 먼저 네팔 사람인 조엘 목사님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었는데, 현

지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언어도 유창하셔서 우리가 네팔에서 활동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 게다가 유머감각이 뛰어나 일을 하는 동안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조엘 목사님의 동생 분은 우리 이동차량 운전을 담당해 주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택시운전을 2년 동안 하고 네팔에 온지 일주일 되셨다고 하였다. 시내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비포장 도로여서 길이 울퉁불퉁 엉망진창이었고, 고산지대에 있는 마을을 갈 때 바로 옆은 낭떠러지였지만 12인승 승합차로 최고의 운전 실력을 보여주셨다. 또 건축을 전공한 분이 계셔서 우기를 대비한 임시 집을 만드는 작업이 하루 만에 숙소 앞마당에서 이루어졌고, 독일에서 호텔 주방장이셨던 분이 계셨기에 몇 가지 재료만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이밖에도 전직 수의사이셨던 분이 계셔서 선물로 받은 염소를 잡아 부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손쉽게 하여 염소고기를 맛볼 수 있었다.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구성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하느님의 뜻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분들에게는 두 명의 젊은 수녀가 어떻게 느껴졌을까?



5/17(일)
셋째 날

08:00 식사 후 배부할 신발 정리
10:00 예배
13:00 두끄찻(Dukuchhap)마을로 출발

- 이동 중에 학교철거 작업으로 중간에 내려 기다림
- 두끄찻 마을로 가는 길에 있는 벽돌 공장(붕마띠 Bungmati) : 신발 배부
- 두끄찻 마을로 가는 길이 산사태로 인해 도로 유실 : 1시간 정도 걸어서 이동
- 두끄찻 마을 : 주택 철거 작업 + 천막작업 + 신발배부

함께한 지구촌사랑나눔팀은 목사님을 대표로 이루어진 개신교 단체였고, 우리의 활동은 이른 아침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성당을 갈 수 없어 매일 아침 5:30분에 1층 식당에 모여 같이 예배를 드렸다. 나와 테레스 수녀는 그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성무일도를 가지고 숙소 4층 베란다에서 아침 해를 바라보며 기도를 하였다.

우리는 전날 혹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에 따라 다 함께 혹은 두 팀이나 세 팀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였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네팔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앞면만 도색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집이 지어지면 그 건물을 토대로 기대어 집들을 짓기에 옆면을 도색할 필요가 없던 것이고, 그러기에 한 집에 여러 가구가 붙어서 지어진 건물들은 지진으로 땅이 흔들렸을 때 한꺼번에 무너진 원인이 되었다. 땅 값이 비싼 이유로 1층보다는 2,3층을 더 큰 평수로 짓는 네팔 건물의 구조도 피해를 크게 하는데 한 몫을 했던 것 같다. 사람들은 지진으로 2,3층이 무너졌어도 1층의 피해가 덜 하면 그곳에서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고,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건물들이 오늘 내일 하고 있어도 바로 앞에서 노점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풍경들을 바라 볼 때면 많이 안타까웠다. 또 다시 오게 될 지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근처의 임시 천막에서 머물고 있지만 가난해서 그 곳을 떠나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갈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었다.

5/18(월)
넷째 날

05:00 성무일도
05:30 예배 및 식사
06:30 초가웅(Chogaun)으로 이동

- 팀을 2개로 나누어 급식 (초가웅/하리시디)
- 초가웅 마을 : 배식 + 아이들과 놀이 + 병원에 남자 아이를 데려가서 진료
- 먼저 가는 일행을 공항에 배웅
- 카트만두 시내 구경
- 시장 : 감자, 생강, 마늘 등을 대량으로 구입
- 마트 : 물, 기름, 소금, 계란 등을 구입

우리는 지진의 피해가 있는 곳 중에서도 다른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미치지 못했던 곳

을 찾아다녔다. 고산 지대에 위치한 다다가웅(Dada Gaun)이나 초가웅(Chogaun), 불가촉천민이 사는 두끄찻(Dukuchhap)마을, 골둥가(Goldhunga)에 위치한 장애인 마을과 두끄찻 마을로 가는 길에 있는 벽돌 공장(붕마띠 Bungmati)등을 방문하였다. 우리가 방문하였던 이 마을들은 원래도 가난한 동네였지만 이번 지진으로 90%이상의 가구가 파손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보는 벽돌과는 다르게 흙벽돌로 엉성하게 집을 만들고 진흙으로 그 돌들 사이를 대충 메꾸었기에 지진 때 그대로 폭삭 무너졌던 것이다. 그 약한 흙벽돌마저도 그분들에게는 매우 귀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무너진 벽돌들을 주워와 다시 쌓고 집들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끄찻에 갔을 때는 집을 철거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집이 워낙 허술하게 만들어졌었기에 지진으로 무너졌지만, 불가촉천민(Untouchable: 최하층인 수드라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들과 닿기만 해도 부정해질 정도의 천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불리는 이름)이 사는 마을인데다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집을 허무는 것을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삽과 노끈만으로도 철거가 가능한 정도로 집이 약했다. 집을 철거할 때에 나오는 먼지는 정말 대단했다. 집이 무너질 때 나오는 흙먼지와 기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에 그을렸던 나무들에서 묻어나는 검은 재들, 지붕으로 올린 밀짚을 걷을 때 나오는 미세한 먼지들은 마스크를 쓰나마나 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철거작업이 끝난 후 거울이 없어 서로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고 또 닦아주었지만 코 안에서는 계속해서 검은 이물질이 묻어나왔다. 다다가웅이나 초가웅에서 붕괴된 집들 사이의 골목을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걸을 때에 무너진 자기의 집을 가리켜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 집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지만, 놀란 표정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두끄찻 마을로 가기위해서 차를 타고 산길을 이동하던 중에 길이 끊겨 모두가 차에서 내려 짐을 들고 걸어서 이동해야 한 적이 있었다. 며칠 전 지구촌사랑나눔팀이 쌀 배급을



위해 이동했다던 길이었는데 산사태로 인하여 갑자기 길이 유실된 것이었다. 나는 걸으면 서 여진으로 인해 혹시나 두고 온 차량이 산사태가 나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다행히 돌아올 때 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차량으로 산 길을 이동할 때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기울어졌거나 반쯤 무너진 집들 사이를 걸어가거나 머물러야 할 때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더 이상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각목들로 지지를 해 놓은 건물들도 꽤 있었지만,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여 누군가 실수로 그 벽을 건드리기만 한다면 곧바로 와르르 무너질 것만 같은 상태들의 집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님은 우리의 안전이 첫째이며, 봉사는 그 다음이라고 계속 주의 를 주셨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차량의 흔들림 때문에 여진을 잘 느낄 수가 없었으나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될 때면 지진이 발생한 것을 곧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루는 오후에 잠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이 심하게 흔들리고 내가 앉아있는 의자도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여진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는지 멀리서 사람들의 괴성 소리가 들렸으나 곧 잠잠해 졌다. 불안감에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데 3층에서 쉬고 있던 데레스 수녀가 놀라서 1층으로 뛰어내려왔다. 낮에 지진을 느끼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새벽에 잠을 자다가 ‘우웅’하는 굉음(지진 때 일어난다는 땅의 울림소리)이 들리거나 침대의 흔들림이 느껴져서 잠이 깨면 아주 순간적으로 지금 가방을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했다. 그 때부터는 내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인지, 지진으로 인해 몸이 흔들리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불안감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느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난 지진으로 대피를 하자는 팀원들의 요구에 주님을 믿고 계속 잠을 자겠다고 하셨다는데, 현장에서 여진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 번의 강진을 경험한 네팔 사람들이 불안감으로 더 이상 건물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밖에 천막을 치고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5/19(화)
다섯째 날

05:00 성무일도
05:30 예배 및 식사
07:00 초가웅(Chogaun)으로 이동
13:00 주 네팔 한국대사관 방문

- 팀을 2개로 나누어 급식 (초가웅/하리시디)
- 초가웅 : 배식 + 철거현장 돌아봄 + 어제 병원에 갔던 남자 아이를 다시 데려가서 진료
- 주 네팔 한국대사관 : 최용진 대사관님과 면담 후 건빵 50박스, 핫반 100박스 수령



우리는 가난한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시장에서 구입한 쌀이나 생수, 감자 등을 나누어 주었다. 네팔에서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차량까지 이동할 때에도 배달비를 따로 더 달라고 했기 때문에 구입한 모든 물건들을 손수 실어 날랐다. 인근 지역에 위치한 쌀가게에서 200포의 쌀을 구입한 후 트럭에 실을 때도 마찬가지로었는데, 점포 안의 좁은 골목에서 쌀을 실어야 했기 때문에 들어 아난 혼자서 들어야 했다. 힘이 센 남자와 함께 우리 둘도 쌀을 날랐는데, 나는 3번 나르고 나니 도저히 못하겠어서 뒤로 물러났지만 데레스 수녀는 10번도 넘게 쌀을 번쩍 번쩍 들어 운반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네팔의 쌀 1포는 30kg이었다.

이번 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쌀이나 감자를 나누어 주거나, 밥을 짓고 감자와 야채를 다듬어서 커리(Curry)와 달(Dal : 녹두와 같은 콩으로 만든 국과 같은 요리)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배식을 하는 일도 하였다. 사람들은 쟁반처럼 생긴 그릇을 들고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서 받은 식사를 손으로 먹었다. 배식이 모두 끝난 후에 음식이 남으면 그제서야 우리도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현지인들과 똑같이 먹어보려고 손으로 먹기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고, 누군가 챙겨놓은 수저로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커리나 달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는 남은 밥에 물을 붓고 누룽지를 끓여서 마시기도 하였다. 현지인들과 함께 먹으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5/20(수)
여섯째 날

05:00 성무일도
05:30 예배 및 식사 (돌라카 Dolakha)지역으로 가는 팀은 5시 출발)
08:30 하리시디(Harisiddhi)로 이동

- 팀을 2개로 나누어 방문 (돌라카/하리시디)
- 하리시디 : 오토리샤를 하루동안 빌려서 이동 + 신발 배부 + 배식 + 아이들과 놀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한국에서 후원받은 아동용 신발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신발을 나누어 준다는 소식에 아이들과 엄마들은 별떼처럼 몰려들었고, 한 줄이나 두 줄로 세워 아이들의 발 크기를 본 후 신발을 나누어주었다. 신발의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아서 처음엔 신데렐라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발을 한번 보고 서도 제법 맞는 사이즈를 찾아 줄 수 있었다. 신발이 맞지 않아 빈손으로 가야하는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에 맞지도 않는 신발을 그냥 주기도 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엄마 품에서 아직 내려와 본 적이 없는 작은 아기들까지도 데려왔는데, 우리는 신발을 그 아이들에게도 모두 다 나누어 주었다. 신발을 받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표정들은 우리의 기분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다. 내가 신발을 나누어 주는 동안 한쪽에서 테레스 수녀는 상처가 난 아이들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 주기도 하였다. 큰 외상이 아니더라도 제때에 소독을 하거나 연고를 발라주지 않아서 상처가 덧난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나와 테레스 수녀는 하리시디나 초가웅에서 아이들과 놀이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하리시디(Harisiddhi)도 이번 지진으로 집들이 무너지거나 균열이 가서 대부분 천막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사는, 한국에서 노동자로 있었던 썸 아저씨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다. 그분도 이번 지진으로 한국에서 벌은 돈을 모두 모아 지은 4층짜리 건물을 잃었다고 하였다. 하루는 하리시디에서 배식을 한 후에 아이들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계획을 하였다. 엄마들은 밖에서 조용히 구경만 할 수 있게 하였는데, 앉은 아이들만 세어보아도 70명이 넘

었다. 아이들에게 아침에 미리 마트에서 구입한 색연필과 크레파스를 종이와 함께 나누어 주고, 더 어린 친구에게는 색칠공부용으로 나온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에서 종이를 놓고 그리면 찢어질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어디선가 박스를 하나들씩 구해왔다. 아이들은 그들도 하나 없는 피약별아래서 맘을 흘리면서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색연필이 모자라는데도 그 많은 아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서로 색을 바꾸어 가며 그렸다. 종이 박스 위에 얹드리고 쪼그려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어린 아이들을 동네 어른들과 함께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림을 다 그린 후 풍선을 나누어 주었는데, 작은 풍선 하나에도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우리도 함께 기뻐다. 말도 잘 안 통하는 아이들과 무엇을 하고 놀까 고민하다가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의 노래를 한국어로 불러주고 같이 춤을 추었다. 춤을 잘 춘 아이들을 뽑아서 상품으로 건빵 1봉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이들은 건빵을 받으려고 발음도 잘 안 되는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맘을 뽀뽀 흘리면서까지 춤을 추었다. 우리는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이들이나 키가 작거나 외소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들을 먼저 뽑아 건빵을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였고, 태양 별이 무척 뜨거웠지만 아이들의 열정은 계속되는 댄스 타임에도 지칠 줄을 모르는 것 같았다. 못 받은 아이들이 한명도 없는지 확인한 후 우리들이 준비한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도 무척 아쉬워하였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함께 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나와 테레스 수녀는 항상 아침에 활동을 하러 나가기 전에 환전한 돈으로 구입한 사탕과 껌을 가방에 가득 채웠다. 한두 명에게 사탕을 나누어주기 시작하면 어느새 아이들이 몰려와서 '기브미 초코렛'을 외치며 손을 내미는 모습, 마치 부모님에게 들었던 우리나라의 가난했던 50-60년대 상황을 보는 것 같은, 신발도 없이 맨발로, 목이 늘어나고 찢어진 옷들을 입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

05:00 성무일도
05:30 예배 및 식사
08:30 벽돌 공장(붕마띠 Bungmati)으로 이동
11:00 다다가웅(Dada Gaun)으로 이동

5/21(목)
일곱째 날

- 팀을 3개로 나누어 활동 (따뜻한 하루팀/ 하리시디 배식팀 / 임시숙소 모델하우스 만들기팀)
- 마트 : 과자와 사탕 구입
- 벽돌공장 : 건빵 3박스 배부
- 다다가웅 : 건빵 3박스 배부 + 간단한 응급처치
- 골동가(Goldhunga) 장애인 마을 : 과자와 사탕 나누어줌
- 마트 : 머리띠와 핀, 머리끈을 구입
- 숙소마당에 우기를 대비한 임시 숙소 모델하우스 만들기 시작



기하게도 네팔의 아이들은 하나를 받으면 더 달라고 하지 않았다. 물론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에게 건빵과 사탕을 나누어 줄 때 혼란이 있기도 하였고, 다다가웅이나 두크찍에서의 어떤 아이들은 받은 사탕을 숨겨놓고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네팔 사람들은 착하고 순수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를 받고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작은 것을 주었다고, 또는 나부터 달라고 하겠지만, 네팔사람들은 달랐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자기 동생 손을 잡고 와서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하나를 받으면 다른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났다.

어른들에게 쌀을 나누어 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싸움이 조금 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내 몫을 받으면 더 달라고 하지 않았다. 집이 무너져서 천막에 살고 있을 지라도 옆집이 살 곳이 없으면 들어와서 살라고 해서 좁은 천막에 수십 명씩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 일텐데, 네팔 사람들은 참 달랐다. 나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네팔을 떠나기 하루 전날 우리는 환전한 돈으로 예쁜 머리띠와 작은 핀 그리고 끈을 구입하였다. 벌써 정이 들어버린 초가웅의 아이들과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여자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의 머리들은 많이 헝클어져 있었고 머리를 묶은 끈들은 늘어날 때로 늘어나 대충 묶은 모습들이 많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다음날 여자아이들이 빙 둘러앉은 가운데에서 머리카락이 제일 흐트러진 아이들부터 한명씩을 불러서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고르게 한 후, 머리를 다시 빗어주고 머리띠와 끈으로 예쁘게 단장을 하여주었다. 아이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좋아하였고,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별것도 아닌 머리띠 하나로 인하여 환하게 웃는 아이들, 가난하면서도 나눌 줄 아는 아이들,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함께 하는 것을 아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행복이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

5/22(금) 마지막 날	05:00 성무일도 05:30 예배 및 식사 06:30 초가웅으로 이동 10:30 숙소로 이동 11:30 공항으로 이동
	- 초가웅 : 여자아이들에게 전날 구입한 머리띠와 핀, 끈 선물 + 간단한 응급처치 + 배식 - 숙소마당에 우기를 대비한 임시 숙소 모델하우스 만들기 완성

아이들과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숙소로 다시 돌아오니 마당에는 전날부터 만들기 시작한 철재와 판넬로 이루어진 임시 숙소의 모델하우스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남아있던 팀원들이 곧 다가올 우기를 대비해서 사람들에게 임시 숙소를 만들어 주려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보았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약한 흙벽돌로 만들었던 집보다 훨씬 튼튼해보였고, 장기적으로 머물기엔 텐트나 천막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졌다.

일주일간의 네팔 긴급 구호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아직 활동기간이 남은 지구촌사랑나눔팀과 일주일간 더 머물기로 결정한 두 명의 팀원과 작별인사를 한 후 따뜻한 하루 대표님과 우리 둘은 한국으로 향했다. 불편하게 살았지만 조금 더 불편해진 것이고, 내 집만이 아닌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며, 슬픔에 빠져있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들, 도와주는 손길에 고마워 하지만 의존적이지 않고 참으로 순수했던 네팔 사람들이 가슴에 깊이 남았다. 함께했던 '따뜻한 하루'와 '지구촌사랑나눔' 식구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었던 한국에서 일했던 네팔 노동자들, 그리고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전하게 활동을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수녀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네팔 긴급구호 현장 체험은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절박한 곳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시간으로 소비녀에게 꼭 필요한 체험이었다.

일주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앞으로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인가...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인가... 병원을 지어야 하는가... 구호물품을 계속 보내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세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들에게 최선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른다. 아직 이 질문들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여전히 복구 작업이 되지 않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네팔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린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며

사진/글 조 예수의소피아 수녀

“아답아, 너 어디 있느냐?”

죄로써 창조주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신과의 분리되었다.

분리. 그것은 죄의 속성 중에 하나이다.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신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도 분리되어 ‘타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와 분리된 ‘너-타자’ 나와 분리된 세상-도구들.

‘생태적’이라는 의미는 다양성, 공존, 유기적, 연관성, 생명 등의 가치들로 나열될 수 있다.

창조된 모든 존재가 고유한 가치로 존재할 권리가 있고 고유한 가치의 존재들이 어울려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생태계이다. 오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가 표방하는 ‘글로벌’과는 그 내용 자체가 다르다. 너와 내가 분리, 타자화 되어 너의 고통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인간은 너무도 폭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더 이상 ‘인간’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다.

그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너는 나와 분리되어 마침내 ‘도구’-소모품의 수준으로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원자력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핵에너지’는 핵분열을 유도해 ‘열’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한 번 분열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30여 년 전 체르노빌의 방사능물질들을 거대한 무덤처럼 봉해버렸지만 내부에서 분열을 계속하고 있어 그 위험은 아직도 공포스러운 미래를 담보로 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는 가공할 핵무기로 사용한다.

깨끗한 에너지라는 가증스런 선전과 실제의 핵발전소는 이렇게 다르다.

너와 나, 그리고 자연과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느끼는 것. 그것이 창조질서 회복의 시작이다.

핵분열. 그리고 창조된 인간과 욕망의 인간성이

분리되고, 욕망의 나와 ‘너’가 분리됨에 따라 거침없이 폭력과 파괴적 범치는 죄의식 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외에 존재들이 겪는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고, 타자의 삶에 대한 관심도 없고 타자의 처지에 대한 상상력 또한 없다. (더이상 이웃이란 개념이 없다) 공감이 배제된 관계, 즉 분리된 세계이다. 밀양, 강정, 세월호, 핵발전소, 철거민(용산참사) 사태는 그 결과이다.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돈(자본, 화폐)과 우라늄은 지옥에서 보내온 인류와 지구를 멸망시킬 존재들이라고.

사실 우라늄(핵발전)조차도 ‘자본’ 때문인 것을 생각하면 돈(자본)이 지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창조된 모든 존재가 하나인 세계로의 복귀,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어,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일 수 있는 세상이라는 인식으로 출발하는 연대, 그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준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아니, 어디에 있고 싶은가?



연평 연가

이 레나 수녀



연평면 유래, 현황

고려사로부터 많은 문헌에 표기되어 있다. 연평(延坪)은 '평평하게 뻗친 성'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중국과 인천방면으로 항해하는 배들이 방향을 알려주는 항로의 표적으로 오늘의 등대역할을 했던 곳이다.

7.3km²의 면적, 유인도 2개 (대연평, 소연평도), 무인도4개 (당도, 책도, 구지도, 모이도) 인천연안부두에서 122km(여객선으로 2시간 남짓 걸림) 북한관의 거리는 석도까지 3km로 국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맑은 날이면 황해도 연백군이 한 눈에 들어온다.

주민의 약 2천명중 남자는 1200명, 여자는 800명이며 학생은 유치부, 초, 중, 고교생을 합하여 100여명이다.

- 조선조 고종 33년 - 황해도 해주군 송림면 송현리
- 1938년 10월 1일 - 황해도 벽성군 송림면 송현리
- 1945년 8월 15일 - 경기도 용진군 송림면 송현리
- 1951년 1월 4일 - 면사무소 이전(송현리 → 연평리)
- 1995년 3월 1일 - 인천광역시 용진군 송림면(인천광역시 편입)
- 1999년 7월 20일 - 인천광역시 용진군 연평면(면 명칭 변경)

평화지킴이

2년 전 연평도 평화지킴이로 파견 받았을 때 특별한 지역에서 살아내야 하는 평화는 뭔가 특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평화는 어느 곳에서 살든지 기도와 봉헌으로 내 자신을 존재화 할 때 일상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번져나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벌써 4년이 지났지만,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억해본다. 북한이 170여 발의 해안포 사격로 인해 연평도의 가옥이 40여 채가 부서지고 수목이 불탔으며 군인 2명, 민간인 1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

린 연평도 주민들은 해가 바뀐 후에도 재공격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긴장과 불안함으로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당시 한국 여성수도자 장상연합회에서는 불안에 휩싸인 연평도를 방문하여 참혹한 상황을 확인한 후 장상연합회 차원에서 2명의 수녀를 평화지킴이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노틀담수



녀회에서 1명,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회에서 1명의 수녀님이 2011년 7월 25일 연평도로 파견되어 마을에서 사글세로 방을 얻어 주민들의 정서적, 영적 치유를 목적으로 1년 동안 생활하였다. 1년 후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회 수녀님이 떠나는 자리에 우리 수도회가 평화지킴이를 지원하여 2012년 8월부터 연평도 평화지킴이로 파견을 받아 2년을 지내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평화지킴이라는 말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평범한 일상이었다. 우리의 오전은 연평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많이 봉헌하였다. 묵상, 기도, 미사, 성체 조배 등을 한 후 특별한 지향으로 연평과 세계평화, 남북통일을 위해 자비의 기도를 매일 바쳤다. 기도에 이어 노인들을 방문한 후 오후에는 노동복으로 갈아입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활발하게 다녔다. 함께 사는 수녀님이 부지런하시고 살림에 재주가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살림이란 말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모든 시간은 결국 지나가는 것임을 느끼며, 삶에서 만난 연평도의 주민들을 소개하면서 나의 연평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자 한다.



연평의 신사

처음 연평도의 주민들은 참으로 부지런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밭일이나 갯일(바닷가에서 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가구당 1명이 공공근로를 하는 특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활보장이 되는 것 같다.

포격사건 당시 전파된 40여 가구는 정부에서 재건축을 해주었다. 그래서 여타의 가구들이 리모델링을 신청하여 정부보조금과 본인부담으로 멋진 가옥을 짓게 되었다. 지에 연평도는 작은 섬이지만 주민들이 사는 데는 없는 것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신도시가 된 것 같은데, 이는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면이 모두 포함된 느낌이다.

연평에는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독거노인이 다수이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는 주1회 반찬 배달을 하며 가끔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내가 만난 연평의 주민들 중에서 멋진 신사 세 분을 소개해볼까 한다. 잊지 못할 고마운 분들이다.

먼저 노 기사님은 만능 재주꾼이시다. 수녀라는 이유 하나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만 수도물이 공급된다. 그래서 집집마다 물탱크가 크다. 물탱크의 급수될 때, 집에서 물을 사용할 때 모터가 필수이다. 겨울에 수도가 얼어서 어려울 때, 방벽에 못을 박아야 할 때, 출입문헨들에 문제가 있을 때에 전화를 드리면 곧바로 와 주신다. 먼 바닷가에 굴이나 고동을 잡으러 가려면 낚은 트럭으로 데려다 주신다. 모든 것을 거저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다.

노 바오로님은 우리 집에서 2~3분 거리에 사시는데 그 덕 창고에 있는 냉동고를 빌려 주셨다. 연평에는 시장이 없다. 그러니 먹을거리가 있을 때 저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썩을 뜯어 삶아서 냉동했다가 썩버무리를 곧잘 해먹었다. 냉동고에는 청량 고추나 대파 혹은 마늘 찢은 것을 지퍼 백에 담아서 넣었으며 콩, 고동을 손질한 것, 꽃게를 손질한 것 등등 마치고 식품가게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박 요한 할아버지는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이다. 고추, 감자, 고구마 등을 군납하신다. 군납하고 남은 자디잔 감자, 고구마, 부추, 호박 등 제철채소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한 마음을 함께 감사히 받을 수 있었다. 세 분의 공통점은 담배도 안하시고 술에 취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선하고 순수하고 성실하신 분들이시기에 더욱 마음 안에 남아있다.

신자들의 애환

섬주민은 대부분이 신자이지만 밀가루 신자가 많아서인지 지금은 거의가 냉담자인 면이 안타깝다. 그래도 열심히 분이 많으시다. 평일미사에 매일 나오시는 안나 할머니, 율리아 어머니, 아가다 할머니, 봄보사 구역장님, 차 안나 할머니를 잊을 수 없다.

안나 할머니는 집안의 다락방을 기도방으로 꾸며놓으셨다. 한글은 모르시지만 웬만한 기도문은 다 외우신다. 할머니는 기도하실 때 촛불을 켜놓고 하시니까 초를 선물하면 기뻐하신다. 허리가 굽지도 않으시고 얼굴도 고우시다. 할아버지는 노인정을 책임 맡고 계신다.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문을 잠그고 노인정을 깨끗이 관리하신다. 깔끔하시고 책임감이 있으신 어르신이다. 우리가 오라버니라고 불렀더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부를 때마다 무척 기뻐하신다. 포도밭이 넓고 포도가 아주 달고 맛있다. 우리는 육지에서 보다 더 많은 포도를 얻어먹었다.

율리아 어머니는 몸이 재고 얼굴도 예쁘며 지혜로우시다. 밭농사와 갯일을 많이 하신다. 작년여름에는 애호박을 600개 이상 따서 농협에 내다파셨다. 농협은 은행 창고방이 1개 있고 그 옆방에서 생필품을 판매한다. 굶은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날마다 쪼려 가신다. 하루에 2관정도 해 오신다. 자녀들은 인천에서 살고 율리아 어머니가 혼자계시니까 그 덕에 가는 것이 부담이 없다. TV뉴스를 보고 싶을 때도 부담 없이 가고 우리가 별식을 만들었을 때도 가게 된다. 어머니는 고추, 무, 오이, 배추, 콩, 옥수수, 상추, 시금치, 대파, 쪽파, 양파, 마늘, 고구마 등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신다.

봄보사 아주머니는 1인용 침대크기만한 대파 밭에 파를 심어서 우리에게 밭을 빌려주신다. 우리는 먹고도 남아서 이웃들과 나누어 주었다. 도미니카 아주머니는 막내딸이 장애인이다. 기저귀를 착용하고 누워있으며 일으켜주어야 앉을 수 있다. 정신지체가기도 해서 밥을 떠먹여준다. 그 딸이 40세가 넘었으니 긴 세월을 애쓰신 것이다. 그 덕에 가면 언제나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자매님의 음식솜씨가 좋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다.

엘리사벳 할머니는 주인집 할머니이다. 아들이 꽃새우건조장을 해서 말린 새우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그 아들의 가족은 인천에서 음식점을 하니깐 연평에서 할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다. 그 아들은 몇 년 전에 노틀담 수녀원에 기도를 부탁해서 담배를 끊



었다고 자랑한다. 우리가 “술도 끊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 펄펄 된다. 술 먹는 재미마저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다. 늘 붉은 얼굴의 순박한 분이시다.

헬레나 할머니는 고운 분이시다. 언어장애인인 아들과 두 분이 사신다. 전에는 평일 미사를 날마다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91세이시고 치매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밥을 한다. 할머니는 기도하실 때 성모상 앞에 늘 촛불을 켜놓고 하신다. 그래서 가끔씩 성당에서 대초를 사신다. 할머니는 우리더러 자주 오라고 하셔서 별식을 만들어가지고 자주 방문하였다.

헤림이 엄마는 선장인 남편을 따라 연평에 들어와서 산다. 아이들은 인천에서 살고 있다. 헤림이 엄마는 한 번에 소주 몇 병쯤 거뜬히 마실 수 있고 술을 자주 마신다. 그러고는 자가용을 운전한다. 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안내방송 자주 해 주는데 어느 날 안내방송을 잘못하여 ‘사격훈련’을 안내한다는 것이 그만 ‘실전’이라고 방송했다. 그 방송을 듣고 헤림이 엄마는 충격을 받아 정신이 나간 듯 멍해져 인천에 나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인천에 있는 긴 시간 동안 개신교를 나가게 된 것을 계기로 요즘에는 연평교회의 새벽기도를 다니며 술을 끊었다. 아무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감사드리며

연평에서 평화지킴이로서 특별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주민들 안에 살면서 그들이 겪는 일상의 삶을 마음으로 함께 하며 지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실생활에서 주민들과 삶을 주고받으며 일상의 평범한 순간을 가난하고 겸허하고 진지하게 지낸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연평도가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지만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평화가 지속되기를 기도한다.



거리의 모퉁이에서 만난 예수님

강 에녹 수녀



“넌, 왜 이렇게 힘들게 거리에서 고생을 하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이예요.”

위의 대화는 계모의 학대로 인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을 해 온 18세 여자 청소년과의 대화의 일부이다. 이 친구의 어머니는 3살 때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이후 두 차례 재혼을 했다. 아버지는 작년에 아이에게 포기하겠으니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청소년의 남동생 또한 최근에 가출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만나길 거부했다.

금요일 저녁 7시경,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붐비는 부천 북부역 이마트 앞 포장마차 뒤에서는 천막을 치고 집기를 나르는 젊은 청년들과 어디선가 삼삼오오 모여든 청소년들의 반가운 인사소리로 꽤나 시끄럽고 부산해진다.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청소년 일시쉼터 ‘별사탕’에서 거리청소년들을 위해 야간 거리 상담을 위한 천막을 치는 날이기 때문이다.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천막으로 모여든 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휴식과 수다, 상담과 게임, 귀가 지원과 기관 연계, 생필품 제공 및 성교육 등의 활동을 한다. 각 테이블 당 한 명씩의 활동가들이 배정되어 그 테이블에 앉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또 다른 활동가들은 2명씩 조를 짜서 밤거리 어딘가에서 배회하고 있을 아이들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이곳에는 하루 40~50명 가량의 청소년이 와서 저녁식사를 하고 활동가들과 수다와 상담을 하며, 누군가는 집으로, 누군가는 그날 밤을 보낼 쉼터로, 누군가는 또 다시 거리로 돌아가곤 한다.

내가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2년에 대학원 1학기 방학소임으로 했던 지역 조사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의 문제를 접하면서였다. 가출청소년들을 단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위험하게 여기고 어쩔 수 없는 불량 청소년들로 규정해왔던 내 사고의 틀에 뭔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후 가출여자청소년 단기쉼터인 ‘모퉁이’에서 실습하는 동안 부천역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매주 금요일에 부천역에서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밥차를 운영하고 있던 민간단체인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기관 방문을 계기로 2013년 4월경부터 EXIT의 제안을 받아 함께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해 10월,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부천역에 가출청소년 일시쉼터인 ‘별사탕’을 개소하면서 EXIT는 서울 신림동으로 옮기고 ‘별사탕’을 통해 부천역의 야간거리상담은 계속 이어오고 있다.

성가요양원과 부천성모병원에서 유기서약 기간을 보내며 자그만치 6년 가까이 부천에서 살았지만 EXIT를 통해 접하게 된 부천역은 내가 기존에 알던 부천역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였다. 자정을 기점으로 부천역은 낮 시간과는 또 다른 세상이 된다. 부천역 주변 거리는 모텔과 여관만도 200여 개가 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술집, 식당, 노래방, 유흥업소들, 24시간 운영되는 펠스트푸드점과 카페, 만화카페, PC방들로 새벽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

다. 이 네온사인인 현란한 거리에서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즐기기 위해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멀리서 보기도 조건만남이나 헌팅을 하는 듯 보이는 어린 여자청소년과 남성, 거리를 배회하는 가출 또는 그 언저리에 있는 청소년들, 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거리의 삼촌과 이모들, 그 외에도 여성노숙자들, 페스트푸드점 앞에 쭈그리고 앉아계신 할머니들까지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넘치고 있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썬텐이 된 봉고차들이 도로변에서 있는 모습을 종종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보도방'이라고 하는 불법 인력소개소 차량으로 그 안에서는 여성들이 타고 있어 인근의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서 전화를 하면 여성도우미를 바로 파견하는 업체이다. 최근에 이 보도방 차량은 중동 쪽이 더 변화해지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다.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 보니 그들끼리의 경쟁까지 붙으면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성인들뿐 아니라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다니는 청소년들까지도 기꺼이 고객으로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천역에는 '삼촌 문화'라는 것도 있는데,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에게 담배나 먹을 것을 사주면서 접근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 남성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러한 '삼촌'들에 의해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 >> (혼자) 그냥 집근처 돌아다녔죠.. 잠은 거의 섰죠... 배고프면 그냥 마트 가면 시식코너 있어요. 그거 먹고.
- >> (혼자) 길거리에서 지내다가 잘 때는 (남의 집 빌라) 계단에서 자고, 먹는 거는 짬을 때는(일주일 정도) 그냥 굶고, 길 때는 친구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 >> (동성친구 1명과 함께)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가출했을 때 막막하죠. 잘 곳도 없고.. 처음 나와서는 일주일 동안 물밖에 못 먹었어요... 별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구요. (엄마가) 보고 싶지도 않았구... 아침에는 롯데백화점에 가요. 벤치가 있는데 거기서 자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자요. 아니면 벤치 있잖아요. 그 벤치에서 좋아요. 한 명은 눈 뜨고 있고 한 명은 즐고, 한명은 눈 뜨고 있고 한 명은 즐고..
- >> (혼자) 그때는 아예 몰랐으니까 그냥 뭐 놀이터에서 잠을 자거나 빌라 같은데 옥상 전 계단 있잖아요. 그런데서 자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서 잤죠. 먹는 거는 이제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무섭지 않았어?) 아빠가 더 무서웠어요.
- >> 술이 너무 먹고 싶을 때. 돈은 없는데. 그럼 그냥 부천역에서 있어요. 그럼(술 사주거나 노래방 가자는 성인 남성들이) 와요. 제일 잘 걸리는 장소가 여기 기독교회 있죠. 그쪽에 착한 돼지 고깃집이 있어요. 무한 리필 집. 거기 앞에 앉는 벤치가 있거든요. 거기가 세 개 있어요. 거기에 앉자 있기만 해도 와요. 왜냐면은 술집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 >> (처음 나와서 어떻게 지냈어?) 친구집요 (먹는 건?) 잘 안먹었어요. 정 배고플 때 슈퍼 가서 훔쳤어요.(가출한 지 며칠 정도 돼서 훔쳤어?) 이틀.



- » 중학교 때는 혼자 했으니까 먹을 거는 이마트에서 훔쳐가지고 먹었어요.
- » 공원에 있으면서 배고르면 앵벌이 뛰고 담배는 친구들한테 얻어 피고 그냥 그러면서 지냈어요. 찜질방 가고 모텔 가고(그 돈은 어떻게 마련해?) 맨 처음 가출했을 때 해본 건 사기. 휴대폰 모바일로 중고나라 같은 데 들어가서 이거 판다고 계좌로 돈 넣어 달라고 그렇게 돈 받고 물건 안보 내는 주는 식... 어차피 가출했으니까 '인생 막장이다'하고 안 보냈어요.



위의 이야기들은 EXIT와 별사랑을 찾아온 청소년들의 목소리이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낯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참 낯설었다. 아이들도 그런 나를 무척이나 낯설어 했던 것 같다. 활동 초기에는 말하는 걸 힘들어하는 청소년에게 다가가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를 위해 기도한다면 될 위해 기도해주었으면 좋겠니?'하고 물어보기도 했다. '엄마랑 살고 싶어요'하고 답하던 한 여자 아이의 말이 가슴을 울렸다.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어렸을 때 가출하여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한 중학생 여자아이는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졸업식을 앞두고 양친 모두 졸업식에 올 수 없다며 나에게 졸업식에 외출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활동가 몇몇과 함께 졸업식에 가서 부모가 오지 않은 다른 아이들도 함께 챙겨 꽃다발을 주고 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며 힘든 시간을 거쳐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을 축하해주기도 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위해 때론 낮에 시간을 내어 함께 병원진료에 동행하기도 하고, 때론 쉼터 같은 방에서 함께 자며 침대에 누워 새벽이 깊어가도록 살아 온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차츰 친숙해져갈 수 있었다.

이젠 어느새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나도 스스럼이 없는 것 같다. 물론 늘 하루에 5~10명까지 새로운 아이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전히 낯설음이 있지만, 아이들은 이제 나를 그 곳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인식해준다. 내가 사정이 있어 못 가는 날에는 아이들에게 카톡 등을 통해 연락이 온다.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없어서 아쉬웠다는 이야기에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다. 한 18세의 여자 아이는 혼자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다가온 남자가 술 사주겠다는 말에 모텔까지 따라가 단둘이 술을 마셨는데, 함께 자자는 부탁을 거절했더니 분위기가 너무 뻘컘해져서 가슴만 만지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다며, 그래도 자진 않았으니 잘했지 않냐고 너무 말간 표정으로 칭찬해달라는 듯이 말하는 이야기에 때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우리를 의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서 작은 희망을 찾기도 한다.

때론 집단 성폭행을 당한 아이가 임신을 했다며 전화해달라는 메시지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초음파 사진을 함께 보고 또 자신의 배 속에서 심장소리가 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에 함께 배에 손을 올려놓고 생명의 신기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또 어떤 아이는 낙태를 하고는 죽은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며,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우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서 함께 아기의 이름과 함께 세례명도 지어주기도 했다.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재판에 참석하고 분류심사원, 소년원, 구치소 등에 면회를 가기도 하고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며, 적어도 아이들이 힘든 시간 중에 혼자라고 느껴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기도하기도 한다.

활동을 시작한 후 가끔 수녀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이들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겠냐?” 고 묻는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겠다”이다. 진짜로 모르겠다. 그러나 다만 이 활동을 하는 내내 내게 가장 크게 와 닿는 예수님의 모습은 ‘씨 뿌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평생을 두고, 그리고 공생활 3년 동안 줄기차게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씨를 뿌리셨다. 돌밭이라고 해서, 가시밭이라고 해서 씨뿌리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는 다만 그렇게 살다 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거리에 씨를 뿌리는 사람일 뿐이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다가신지 2천 여 년이 지났지만, 나를 통해 오늘도 이 거리에 서 계시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찾아다니심을 종종 체험하고 감사드리곤 한다. 그렇게 뿌려진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영역이시고 성령의 활동이시라고 믿는다. 아이들은 하느님이 주신 세상에 대한 선물이고, 아이들이 그 시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관심과 보살핌을 쏟아주는 것, 그것이 어른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몫이 아닐까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내가 깨닫는 것은 아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다. 부디 그때에는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들을 되풀이 하지 않길, 지금은 끝없이 막막한 터널이지만 부디 언젠가는 세상 안에서 자신들의 집을 찾아가길 기도하며 오늘도 다시 거리로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 마지막으로 19세의 여자 청소년의 편지 내용을 나누고자 한다. 현재 성매매 알선, 감금, 폭행, 공갈, 협박으로 3년 6개월 선고를 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아이의 마음이 담긴 내용이 수녀님들 기도 안에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마니 보고 싶은 에독 수녀님께

수녀님, 안녕하세요. 뉘엿뉘엿 가을이 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일교차가 심해져서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너무 너무 혼란스러워요... ㅠ 여주.. 가고 싶다. ㅎ 22일날 수녀님이 계신가 봤는데 안보이셔서 또 어디 편찮으신 줄 알고 걱정 했었어요. 속상해 하면 뭐해요. 제가 잘못된 것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인데.. 자꾸만 기적을 꿈꾸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여기 안에 있게 된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요.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기분이 좋아지고.. 열심히 제 자신을 다스리겠다고 나를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게 제 마음처럼 잘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속상해요. 이렇게 갈려 있어도.. 하루 일상이 번잡함이 똑같아도 그날그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 바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구령을 받고 나서부터 자리감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빠지게 되고. 그래서 더욱 머릿속과 마음속은 심란해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제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두렵고 무서워요.. 그리고 괜히 기대도 해보게 되고.. 이렇게 여기서까지 이르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해요..

수녀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욕심이 라하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법'이라는 말도 있는데.. 제 욕심이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라해서 결국에는 화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수녀님도 제 생각과 같은가요? 다른 사람을 헐뜯아 기 전에... 나무라기 전에.. 그 전에 제 자신을 한번쯤 되돌아 봐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헐뜯고 나무랐어요. 제 마음 속에는 이기심과 욕심, 허영과 자만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전에는 양의 털을 쓸 수대였어요. 몇 년동안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고 감정을 그때그때 표출을 했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기고 싶어요. 맨날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기만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지고 싶지 않아요. 또 지면은 저는 평생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이제는 저로 인해 아파하는 친구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까지 되어 보아야 정신차리는 친구들을 보기 싫어요. 양의 귀렁둥이 속에서 꺼내 주고 싶어요.

수녀님 축적 잘 보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되게 많이 보고 싶어요. 조만간 꼭 봐요.



개구쟁이 예수네 좌충우돌 공부방

박 데레스 수녀

“딩~동~” 아침 식사가 채 끝나지 않은 시간에 바쁘게 벨이 울립니다.

“수녀님! 엄마가 집에 없어요. 저희 학교가야 해요!”

“알았어. 그런데 지금 너 지각이야. *중이 그냥 두고 빨리 뛰어가!”

지적 장애 3급인 아이들 엄마가 또 새벽같이 집을 나갔나봅니다. 학교에 가야되는 형들은 5살 막내를 공부방에 맡기고 서둘러 뛰어갑니다. 엄마가 없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막내는 자연스럽게 수녀원 문을 열고 들어와 한 자리 차지하고 앉습니다. 자다 깬 얼굴 그대로인



아이를 세수시키고 유치원 차에 태워 보내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 한 주에 두 세 번은 있는- 광적 분원의 흔한 아침 모습입니다. 이렇게 분주한 아침을 시작하는 저희 광적분원은 작년 10월 22일 김 도나도, 박 데레스, 한 아녜스 소비녀가 소임을 받아들인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서약자 황 베드로 소비녀가 2월 까지 함께 지내다 풀무농업학교로 떠났구요, 지금은 2년 수련자 전 알퐁소 소비녀가 저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신설 분원이라 아무 것도 없던 빈 집에 하나씩 살림이 늘어가는 것이 마냥 신기해서 서로 알뜰하게 생활비를 아끼며 소박한 밥상에도 즐거워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에 책장이 들어오고 책들이 한 두 권 늘어나는 재미에 쏙~ 빠져서 시간이 벌써 7개월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온 광적 분원 소비녀들의 지난 시간들을 수녀님들과 잠깐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처음 아이들과 만났던 것은 소임을 오기 전, 작년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당시 강생의 집 학생 수녀들에게 봉사자가 없어 아이들 학습 지도가 어렵다는 광적 성당 공부방 소식이 전해졌고, 여름 방학 동안 학생 수녀들이 돌아가며 봉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아이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지요. 광적 성당 지하 교리실에서 시작된 작은 공부방은 부모가 있어도 굶을 수밖에 없고 거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본당 신부님이신 강주석 신부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부방의 시작 때부터 본원의 지·청원자, 수련자들이 봉사를 나왔었고, 방학동안 학생 수녀들이 봉사를 하면서 맺어온 인연

으로 작년 11월부터 수녀원에서 온전히 맡게 된 것이지요.

광적분원은 우리 관구가 의정부교구에 자리 잡도록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깊은 뜻이 담긴 상징적인 사도직 현장이기도 합니다. 공부방이 위치한 가래비 거리에 나가면 한국 사람만큼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광적면 일대의 크고 작은 공장들에 취업한 이주 노동자들이지요. 가래비의 풍경은 마치 동남아시아의 한 거리에 와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당연히 함께 하고 있지요. 광적면 자체가 의정부교구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공부방에 나오는 아이들 하나 하나의 문제를 다루다보면 호박 넝쿨처럼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가 줄줄이 달려 나오는 곳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장소, 주님의 영께서 소비녀들의 손길과 헌신이 꼭 필요한 곳으로 다그치시고 이끌어주신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가래비라는 절박한 현장, 세상의 변두리에 첫 사도직으로 시작된 광적 분원, 성가공부방이지요.



아이들과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납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오던 아이들은 불우한 환경 탓에 어두운 표정일거라 생각했던 저의 예상을 뛰어 넘는 아주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기에 잘 먹지 못한 탓인지 또래보다 다들 작은 체구와 그 체격에 비해 엄청난 식사량에 두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어두운 표정은 수업시간에만 아주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또래에 비해 뒤쳐지는 것은 키와 몸무게뿐만 아니라 성적도 만찬가지였습니다. 4학년이 되도록 아직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아이, 알파벳과 발음기호를 모르는 채로 영어 수업에 그냥 앉아만 있는 아이들, 중학생인데 나눗셈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다가 '수학기 초다지기'라는 교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외울 때까지 수업은 끝나지 않는다.'라며 발음기호를 못 외워서 울먹이는 아이를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며 소비녀들과 아이들은 정을 쌓아 갔지요. 그래서인지 11월부터 전적으로 수녀원에서 맡게 되면서도 아이들은 어려움 없이 잘 적응 할 수 있었고, 성당 지하 교리실에서 지금의 공부방으로 이사 오던 날은 모두들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했지요. 그 중에서도 *민이네 4형제는 마치 자신들이 새 집으로 이사 온 것 마냥 기뻐했답니다.

*민, *진, *균, *중 4형제의 아버지는 재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지적장애 3급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술에 절어계신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탓에 잘 못 먹고 잘 씻지 못해서 꼬질꼬질한 얼굴로 거리를 돌아다녔고, 설상가상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어머니로 인해 동네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인 *민이 역시 지적장애 2급이라 동생들까지 지적장애로 의심받기도 했지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아이들 스스로 감당하기에 많이 벅찼을 텐데도 의외로 아이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강한 우애를 보였고, 오히려 자신들을 돌보아주지 않는 엄마를 잘 챙겨주는 모습에 가슴 먹먹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빌라에서 정식으로 공부방을 시작하면서 거의 매일 *민이네 집을 드나들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원에서 매주 한 번씩 방문하여 수녀님들이 집 청소와 빨래 등을 해주시면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

다고 들었지만, 막상 집에 들어서니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온 방 가득 널브러진 옷가지들과 곰팡이 가득한 벽지와 쓰레기통을 방불케 하는 냉장고까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몰라서 한참을 가만히 서서 집안을 둘러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언제까지 수녀님들이 해주지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용히 아이들과 엄마를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 가득 옷이 흩어져있는 방을 들여다보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과 엄마 모두 겸연쩍게 웃으며 “좀 심각하네요.”라고 대답하며 먼저 손에 닿는 대로 치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이후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은 귀찮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함께 설거지를 하고 방바닥 비질을 하며 자연스럽게 집 정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개학을 앞둔 2월의 어느 날.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아 손도 못 대고 있던 아이들의 방을 공동체 수녀님들과 수련원 식구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대대적인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날 모두 함께 집 청소를 하고 밀려있던 엄청난 옷가지들을 모두 빨고 정리하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일손을 돕는 아이들에게서 자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발견한 것 같아 무척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노동으로 무척 힘은 들었

지만 끝나고 함께 둘러 앉아 먹은 자장면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날의 대청소 이후 한동안은 꽤 정리정돈을 잘하더니 최근 다시 피를 부리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러 집으로 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방청소라도 해놓는 녀석들이 얼마나 예쁘지요! 따뜻한 봄바람에 쭉쭉 크는 나무들처럼 새 학기 들면서 키도 한 뼘씩은 더 자라고 몸무게도 부쩍 늘어난 아이들의 통통한 뺨은 또 얼마나 예쁘고 신기한지 모른답니다.

저희 광적분원 소비녀들이 공부방에서 아이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 사도직을 함께하며 지역 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몸과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방문 사도직을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재가복지 담당이라는 소임을 받고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동체 수녀님들의 도움과 가르침을 받으며 한 집 두 집 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본당 공동체와의 연대를 위해 봉성체 때에 함께 다니며 기도하고, 매달 반 모임도 열심히 다니면서 주변 이웃들의 사소한 일상들과 평소 쉽게 말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역장님과 반장님은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수녀님들을 처음 보았다며 정말 기쁘게 반겨주셨고, 지금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두 분을 소개하다보니 지난 4월 저희와 일주일을 동거했던 *호라는 꼬마를 빠뜨릴 수가 없네요!

올해 여섯 살인 *호는 누구도 못 말리는 개구쟁이 말쑥꾸러기입니다. 이제 스물여덟인 젊은 엄마는 올 3월 초에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10개월 된 아기와 *호의 아빠는 작년 말쯤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일찍 혼자 된 외할아버지는 딸의 암 진단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막상 딸을 입원시키고 나니 외손주들을 돌보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공장 일은 저녁 8시나 되어야 끝나는데 아이들을 맡아 줄 가까운 친척도 없고, 열흘 가까이 두 아이를 맡아 주었던 애기 엄마 친구들은 이미 지쳐서 *호만이라도 잠시 맡아 줄 사람을 급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반장님이 급하게 저희 공동체를 찾아 오셨고, 외할아버지의 사정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도나도 수녀님과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희 공동체는 기꺼이 *호를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소 공부방에서 다섯 살 *중이도 유치원 끝난 후 형들이 공부를 마치는 시간까지 돌보고 있었으므로 큰 걱정 없이 *호를 맡은 것은 성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 공동체에 찾아 온 어린 예수님이라 생각하며 정성껏 돌보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러나 *호는 등장부터 남달랐습니다. 빌라 계단을 우렁차게 소리 지르며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하며 올라오는 이 꼬맹이를 데리고 성주간 전례와 부활 미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일주일을 동고동락하며 먹이고 씻기고 재우며 잠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노고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때는 꼭 국이 있어야



밥을 먹고, 궁금한 것은 절대로 참을 수 없어 온 집안을 뒤지고, 목욕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며 얼마나 소리소리 지르며 신경질을 부리고 울어대는지... 수녀 세 명이 번갈아 가며 잡 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아이를 보아야 했었지요. 낮 동안 그렇게 말썽부리며 속 썩여도 밤에 엄마를 찾으며 잠 못 들고 뒤척이는 아이를 재울 때면 정말 마음 아파서 속 썩었던 일은 까 땅게 잊게 되더군요. 아직 애기인데 엄마 떨어져서 얼마나 힘들지...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희도 함께 잠 못 들던 한 주가 그렇게 지나고 *호는 다시 엄마 친구네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지내는 동안 늘 “여기는 손대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하며 하도 투덜거리서 혹시나 수녀님들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오늘도 *호는 빌라 앞을 지나면서 “수! 녀! 님!”하고 씩씩하게 소리를 지른답니다. ^^ 다행히 *호의 엄마도 수술 경과가 좋아서 항암 치료 중이기는 하지만 컨디션이 좋은 날은 유모차를 밀고 산책을 다니는 정도는 된답니다. *호와 엄마를 위해 수녀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광적 분원 소비녀들의 일상을 짧게 정리하다보니 7개월이 정말 금방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 씨름하며 천국과 전쟁터를 오가는 치열한 하루, 어르신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며 어렵게 초인종을 누르던 하루, 편찮은 어르신과 치과 가야되는 아이들 스케줄이 겹쳤지만 봉사자가 없어 결국 한나절동안 몇 번을 의정부를 왕복했던 하루, 아이들 성적표 나오는 날 그들보다 더 긴장하고 기다렸던 하루... 그 하루하루가 모여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제 종신 서약을 앞둔 저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이웃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소한 일상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므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임을 매일 매일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땡~동~ 수녀님!!”

오늘도 힘차게 벨리 올립니다. 빌라 옆동 여섯 살 쌍둥이 자매가 놀러왔습니다.

“수녀님~ 들어가도 돼요?”

“그래, 어서와! 할머니랑 저녁 밥 먹고 가!”

“와!!!”

낮 동안 조용하던 빌라는 어느새 아이들 목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이렇게 광적분원 소비녀들의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우고리 청소의 날

의정부관구 수련자들

수련원에는 특별한 일과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우고리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나가 일과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마을길을 돌아보니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가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 비닐, 캔, 스티로폼, 플라스틱 폐기물 등 영구히 썩지 않고 분해되지 않을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생태적 공동체를 사는 소비녀들의 역할이라는 것에 마음을 모아 한 달에 한 두 번씩 자연과 함께 하는 일과기도 날에 우고리 마을길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길을 나설 때 장갑과 커다란 자루 같은 것을 준비해서 나가 기도가 끝나고 돌아올 때 마을 길 구석구석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눈에 띄는 대로 주워 담으면 2, 3개의 큰 자루가 가득 찰 정도로 쓰레기가 모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좀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마음은 즐겁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창조적 기쁨이지요.



하느님 창조 질서으로 되돌아가기

인천관구 수련원
수련사 이 사도요한

세상은 점점 빠르게 움직이며 복잡해져만 갑니다. 모두들 끝이 어딘지 모르는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생활은 분명 편리해 졌지만 마음은 텅 비어만 갑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기만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어느 새 우리의 삶의 중심엔 물질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발전된 사회가 되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와 가질 수 없는 자의 격차는 커져만 갑니다. 생태계는 매일 한 종류 이상의 종이 멸종되며 매 시간 1500명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죽어갑니다. 우리의 땅은 개발로 황폐화 되고 바다는 전 세계에서 가져다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멈추어 우리의 삶을 바로 보고 위기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위기(crisis)란 산스크리트어 kir 또는 Kri에서 온 말로 정화 또는 청소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삶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우리의 문명과는 달리 사는 방식, 사고, 모든 행위에서 정신적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살던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덕과 계곡에서 그들 주위에서 느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위대한 영을 숭배했고 믿음 속에서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바위들

도 이 고귀한 종족의 역사를 묵묵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리듬과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신은 피조물과의 교감을 통해 발현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성공의 기준은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가?”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나이든 사람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항상 먼저 보호하고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에서 인디언들이 살았던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손수 창조하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주 만물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길을 마음 깊이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1620년 11월, 영국을 떠난 한 척의 배가 미국 동부해안에 닿았습니다. 배의 이름은 메이플라워였고, 배 안에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살고자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대지를 보고 감탄하였으나 곧 겨울이 되어 많은 눈이 내리자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견디다 못해 인디언들의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인디언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언 사회에서는 욕심을 내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 음식을 훔친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디언들은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옥수수를 심고 기르는 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해하며 인디언을 자신들을 위해 하느님이 보내 준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했



습니다. 뒤이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더 많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백인 정착민들이 땅을 요구하자 인디언들은 조약을 맺고 그들이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인들은 그 땅에 울타리를 박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발발 7년 전,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두와미쉬 인디언들로부터 인디언들이 조상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수 백년 동안 백인들

은 광활한 북아메리카땅을 누비며 수많은 인디언 부족을 학살했습니다. 추장이었던 씨애틀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모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1854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인디언 보호 거주지로 강제 이주 당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지구와 인류가 파괴와 재앙에 직면한 오늘 날, 씨애틀 추장의 편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들에게 생생한 호소력으로 전해집니다.

저 하늘과 따사로운 땅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시원한 공기와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그대들에게 하늘과 땅을 팔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 땅 구석구석 어디나 신성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 거룩하게 흐르고 있다.

땅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그대들과는 사뭇 다르다. 도시의 소음은 귀를 모욕하는 것만 같다.

멀리 숲 속에서 들려오는 쫓독새의 외로운 울음소리나

한 밤에 연못가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삶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땅의 짐승들을 형제처럼 대해 달라. 동물 없는 세상에서 사람이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디처럼 같이 맺어져 있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심장의 고통을 사랑하듯이 이 땅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팔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듯이 이 땅을 사랑해 달라.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이들을 위해 이 땅을 지키고 사랑해 달라.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의 하느님은 하나라는 것을

이 땅은 하느님에게 소중하다. 백인들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



해외선교사학교를 마치며 만민에게 (Ad Gentes)

수련원 이아름 바오로 수녀

지난 해 3월 해외 선교사 학교로 향하는 첫 날은 기대감과 긴장을 동반했습니다. 은연 중에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의향이 있었던 지라 커리큘럼에 대한 기대감과 같이 수강하게 될 분들에 대한 궁금증 또 선교소임을 받기는커녕 착복한지 얼마 안 되어 머릿수건이 아직 어색한 수련자일 뿐인 제가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듯이 환대해주는 관계자 분들과 수강생분들을 만나며 이런 걱정과 불안감은 서서히 녹아갔습니다.

첫 학기에는 선교학과 현대신학동향 및 성서신학에 대해 배웠습니다. 미리주신 강의록에는 빼곡히 교의적인 주제를 다룬 강의들이 적혀있었습니다. 학교를 오고가며 알쏭달쏭한 글을 열심히 읽었지만 강의를 해주셨던 신부님, 교수님들도 암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 자기 안에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고 쉽게 풀이해주시어 강의가 끝난 후 돌아오는 길에 강의의 내용을 되새기며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교의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접하면서 교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배우고 또 스스로 고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보다 자세한 교회사, 즉 한국교회사와 세계교회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 학기에서 배운 선교의 역사를 떠올리며 역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받았던 영향, 또 주었던 영향 등등을 보며 평신도에 의해 먼저 복음을 접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린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면서 그들의 후손인 현재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빛을 후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파리의방선교회를 중점으로 연구하셨기에 강의를 통해 보다 성 신부님에 대해, 더 정확히는 선교사들이 파견되던 당시의 나라 안팎의 상황을 폭넓게 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하여 과거는 물론 현재의 한국교회에 대해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계교회사 또한 선교중심으로 풀어나가 주셨기에 그리스도교가 국교화 되는 과정과 유럽으로 퍼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개혁과 각 대륙별 선교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 수련원에서 진행된 수도생활 강의에서 교회사 흐름(수도생활 중심)과 맞물리며 보다 넓고 다양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와 같이 가는 것이기에 과거를 알고 또 거기에서 나타난 긍정·부정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앞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느낌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 학기에서는 선교를 할 때 국제공동체인 같은 국적의 소속의 공동체인 인간관계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을 토로하게 된다며 [인간관계와 소통]강의와 타문화·종교를 접했을 때 이들과 어떻게 대화하며 나아가야하는지의 목표로 편성된 [문화와 종교] 이었습니다. 인간관계 수업은 지칭원기에도 들었었기에 비슷하지 않을까 하였는데 지칭원기에 들었던 강의가 심리학개론과 자아분석이었다면 이 강의에서는 보다 '소통'을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진단하기에 앞서 한국사회를 진단해보아야 한다며 한국의 급성장을 먼저 언급했을 때 6가지의 세대(전후세대~G세대)가 같이 사는 사회임을 알아야한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을 이해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한 갈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절한 갈등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하다고 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겪었던 환경이 나와 같을거라는 생각, 그리고 갈등은 무조건 피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은 오후에 타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인류학 교수님들이 진행했는데 모든 분들이 강조하신 말씀이 '낯선곳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타문화를 접했을 때, 나와 다른 어떤 것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



니다. 본인이 연구했던 나라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도 그 나라에 대한 애정을 보면서 타문화를 사랑한다는 것, 또 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보통 그들에게 한국적인 것을 이식하려고 하지만 막상 가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에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네 번째 학기에는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선교사들의 체험을 공유하면서 실제로 각자 선교지에서 부딪치게 될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그 부딪침을 어떻게 복음의 빛으로 내면화 하는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수없이 준비하여 갔어도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언어, 문화차이, 공동체, 질병, 갭, 단, 내전 등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예수그리스도를 그들에게서 만난다는 기쁨으로 선교 생활을 하셨던 이야기 속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점검하는 성찰과 영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동안의 커리큘럼을 들으면서 선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를 다닐때엔 '선교사'라는 말이 '해외'에만 국한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은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만 깊이 해당되고 저는 하나의 지식으로서의 앞에 그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이야기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의 문화를 떠나 낯선 곳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에 해당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AG 2항) 그렇기에 수도자인 우리는 더욱 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의 빛을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모든 수업의 내용이 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새로움 속에서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납니다. 타문화에서만 스펙터클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하루는 어제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속해있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하며 하느님께서 창조한 진정한 나에 대해 알아갑니다. 전갈에 쏘이거나 말라리아에 걸리지는 않더라도 현

재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것을 복음의 빛으로 극복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총알이 빔발치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에 공감과 연민을 느끼며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결국 저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이곳에 이미 와 있는 하느님나라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제가 속해있고 살아가야 할 하느님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하느님나라는 해외나 수련원 안이라는 시공간적 분리가 중요하지 않음을, 제가 있는 현재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설령 할 수 있더라도 금방 소진되어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라는 당신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창세1,26)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와 하느님의 관계, 나와 교회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다른 기타등등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이루며 살아온 역사를 보며 한사람의 그리스도인, 수도자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 것 인가 하는 질문 앞에 다시 한 번 설립 카리스마를 떠올립니다. 성자 예수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내려오신 것처럼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소비녀로서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전하는 대상보다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의 삶 안으로 내려들어가는 것. 특히 가장 낮은, 소외된 이들의 삶속으로 내려가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발견한 그 때가 가장 기쁘다던 선교사분들의 말을 가슴깊이 새겨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잊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이 모든 것은 혼자서의 힘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나를 내려놓으며 내 힘의 아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하느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믿고 의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신뢰의 관계. 사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끝없이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내세우는 제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선교사분들의 체험 속에서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그렇게 되길 희망하며 제 거칠음을 가다듬고 기쁜 소식을 알리는 수도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여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 관구장 수녀님과 모든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녀님들의 배려로 강의를 통하여 만민에게 내려가는 삶에 대한 기쁨. 우리 수도회의 설립카리스마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순간에 강생의 삶이 생각나면서 소비녀로서의 삶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를 통하여 배운 것들을 지식적 앎에 그치지 않고 체험적 앎으로 계속 걸어 나가며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지금 서있는 현재의 자리, 그리고 이 세상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작은 도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선교사학교를 마치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수련자 성 데레사 수녀

2014년 3월 13일부터 개강미사로 시작해서 4학기 동안 해외선교사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선교사학교를 다니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많이 두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내내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 다. 물론 여러 가지 기본 지식을 배운 것도 많지만 그 보다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8개월 동안 선교사학교를 다니는 동안 크게 나누면 선교학, 현대신학,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인간관계, 문화인류학, 선교체험 나눔 등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동안 제가 선교학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과 이해하고 있던 것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선교사는 누구인가? 왜 선교하는가? 어떻게 선교하는가?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은 바로 신앙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성삼위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의 한 부분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라고 합니다. 제가 선교학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 신앙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고 또 처음 선교사 학교를 통해서 뭐 얻으려고 강의를 듣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 편하게 주어진 대로 받으라는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부터 주도하시는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첫 학기 현대신학 중 교회론, 구원론, 교회일치, 생태신학이 저에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인 교회의 흐름과 선교역사, 지역교회 발전 등, 이어서 한국교회사와 세계 교회사를 배웠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던 교회사였지만 이제는 강의를 듣게 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사는 지?청원기 때 테이프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안 됐습니다. 정말 선교사 없이 시작한 한국 교회는 하느님의 크신 부르심과 이끄심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박해 때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정신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지 또

한 하느님을 갈망하고 신뢰하고 희망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박해 중에도 하느님이 이끌어 주신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 그분의 크신 사랑을 느낍니다. 또한 세계사 안에서 교회의 상황, 각 나라의 종교에 대해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도 없고 종교박해도 없지만 삶에서 순교의 정신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희생을 실천하기도 어려워하는 제 자신의 신앙도 다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와 소통에 대한 강의는 공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동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은지, 갈등이 없을 수 있는지 참 어렵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갈등을 피하고 소통의 기회를 놓쳤던 제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표현의 방식에 따라 상황 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연습 안 되지만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 존중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저에게 제일 큰 변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느님이 허락하신 관계이기에 서로 존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살게 된 것에 하느님께 참 감사드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류학 강의를 들은 후 제가 가지고 있던 고유 관점과 나라마다 전통문화와 생활에 대한 특징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힘들었던 문화의 차이와 사고방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 관점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무조건 순명으로 착각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선교사들이 선교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신분의 선교사들이라서 각각 선교체험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느님과 만남의 체험입니다.

중국인인 저는 이미 해외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실 때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 제 의식을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선교라는 삶 자체입니다. 8개월 동안 참 소중한 시간이었고 함께 강의 해 주셨던 많은 교수님과 신부님, 학생 신부님과 수녀님, 자매님들 모두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알풍소 소비녀의 현장렉시오

- 장애의 굴레 위에 덮씌워진 또 다른 굴레

수련자 전상미 알풍소 수녀



제도라는 것이 공급을 받는 대상자에게 늘 100%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수녀원 입회 전에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사회복지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와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늘 답답함이 남아있었다. 수련원에서 현장 렉시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에 희생된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래서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재의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싶었다.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과 장애인들의 고통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 연구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정도를 1~6등급으로 나눠 복지 혜택을 차별화하는 제도다. 장애의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는 심사 기준이 단지 의학적인 기준에 있다는 것은 전인적 인간관으로 보면 상당히 편협한 기준이고, 그 무엇보다 사람의 몸을 심사해 등급을 매기는 자체도 매우 비인격적이라는 것이다. 등급제도는 의사진단과 공단의 평가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등급 재심사에서 수급이 탈락되는 경우를 보면 삶이 나아졌거나 몸 상태가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미묘한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미묘한 차이로 장애인들의 삶은 급격히 달라진다. 부양의무제는 보다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한다. 장애등급을 받고 도움을 받는 수급대상자의 직계 가족 즉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들에게 부양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이 중지된다.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있으면 장애인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면 부양의 몫은 자녀에게로 돌아간다.

이 제도가 장애인들의 삶에 얼마나 큰 불안 요소이며 위협적인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죽음으로 증명하고 있다. 장애 등급 재심사에서 탈락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가족의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은 이들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아들을 둔 일용직 노동자 아버지는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한 노인은 사위

가 예전에 받은 소득이 적용되어 수급자에서 제외되자 음독 자살을 하기도 했다. 한 장애인은 심한 장애로 활동은 물론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상태임에도 그에 적합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 활동 보조인이 없이 지내던 중 발생한 화재로 있는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한 장애인은 춘천의 자기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엔 “경찰관, 소방관님께서 저의 죽음을 세상에 알려주시길 바란다”라면서 “나는 쌀 한 포대가 아닌 자립을 원했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것에 항의하던 장애인 박진영 씨가 주민센터에서 흥기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사망했다. 간질장애 4급으로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던 박 씨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음으로써 수급 권에 탈락할 것을 비판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 두 제도는 결국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제도가 아니라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몹쓸 제도가 되고 있다. 절박하게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주기 위한 등급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부정 수급을 가려내겠다는 제도이다.



2. 사유

복음적으로 보기

이 현장의 문제를 볼 때 떠올랐던 복음은 바르티매오라는 눈 먼 거지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었다. 외롭고 빈곤한 처지였다 눈조차 보이지 않는 가난의 정점,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르티매오 소경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보신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복음 속에는 분리, 제외, 배척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구분이 없으시다. 예수님이시라면 인간을 생명을 놓고 등급을 매기는 비인간적인 제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제도에 대해 엄중하게 꾸짖으셨을 것이다.

눈먼 거지 바르티매오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모든 생명의 소리로 들려온다. 그러한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분은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거나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묻고 그와 소통하시는 사랑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운다.

설립자의 눈으로 보기

설립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겠는가? “가난함과 가난한 자 미소한 자들을 사랑하



시오. 그것이 소비녀 본 생활이며 또 특히 우리 사랑하올 예수의 본 모범과 원의입니다.” 설립자 신부님을 생각하면 늘 이 말씀이 먼저 생각난다. 성 신부님께서 아마 지금 이 문제를 보셨으면 “소비녀들! 뭐 하고 있습니까? 당장 그들에게 가십시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 신부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읽은 강론집과 책을 통해 만난 신부님은 누구보다 먼저 그들에게 달려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을 것 같다. “소비녀들이 장애인들을 직접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쁜 제도를 바꾸는 일에도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소비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에 세월호 미사 참석을 위해 광화문을 지나는 길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시위 중인 장애우들을 보게 되었다. 답답한 지하도에서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은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권유하고 있었다. 거의 3년 가까이 응답 없는 시위를 하고 있는 그분들 곁에 몇몇 봉사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함께 있긴 했지만 그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세상의 관심으로부터도 가장 소외된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현장에서 소비녀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장애우들이 제도로 인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잘못된 점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 등이 떠올랐다. 우리 소비녀들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연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3. 나눔

이 내용을 현장 렉시오 시간에 나누었다. 대부분 자매들은 장애인 등급제도가 무엇인지, 부양 의무제도가 무엇인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한 수녀님은 전에 있었던 시설에서의 체험을 나누어주었다. 부모님 두 분 다 장애인이었던 사회복지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그가 정식직원이 되면 그가 부양의무자가 됨으로써 그동안 부모님 앞으로 나오던 수급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초보 사회복지사로서 받을 수 있는 급여로는 장애인인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양육하며 살아 갈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장애인 부양의무제는 적용된다. 하는 수 없이 그를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또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여타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미봉책이다. 장애인 부모님을 모시는 것만도 힘겨운 그들에게 부양의무제는

보다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다. 그들의 생활은 결코 나아질 수 없는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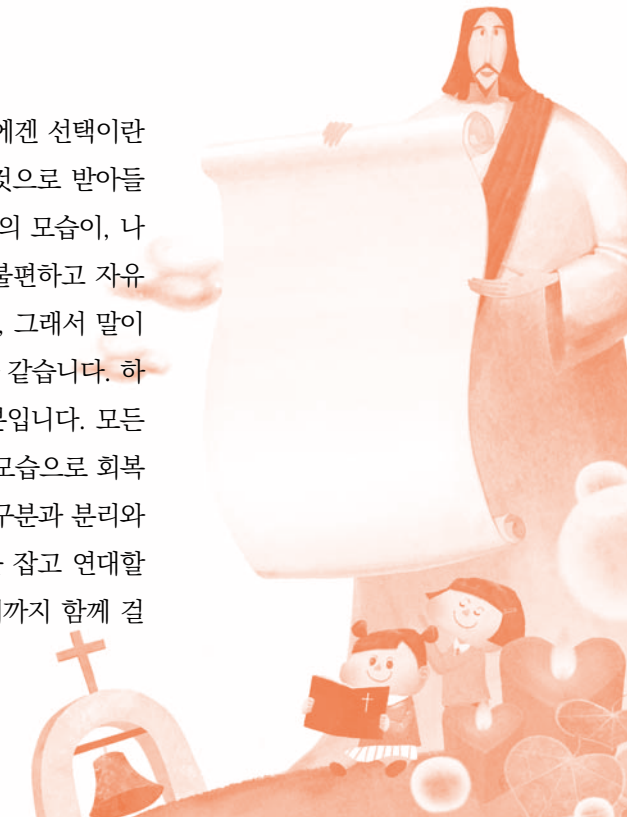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동의했고 함께 마음 아파했다. 등급제로 인해 이토록 많은 장애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사실도 모두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거리에서 만나는 그분들을 무심히 지나쳤던 시간들이 죄송스러웠다.

4. 실천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은 우리의 힘을 합해서 장애인에게 불리한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 현장의 현실을 연구하면서 당장 제도 폐지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장애인 등급제도와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 서명지를 다운받아 프린트해서 갔다. 나의 나눔을 듣고 모두가 서명을 하겠다고 적극 참여해주어서 수련원 가족들과 지·청원소 가족들은 100% 서명을 달성했다. 본원의 선배수녀님들께도 요목조목 설명을 해드리며 서명을 부탁드렸다. 이를 후에 20명 본원 수녀님들의 서명이 담겨있는 서명지를 받을 수 있었다. 선배 수녀님들의 이름과 사인으로 배곡하게 채워진 종이를 들여다보면서 든든한 후원자를 보든 듯했고 용기가 났다. 다음날 우편으로 서명지를 발송했다.

5. 기도

주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란 없습니다. 그저 삶이란 것을 운명처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나와 다른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 그래서 말이나 표현 방법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사람들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셨던 주님, 저희가 그들 앞에 놓인 구분과 분리와 소외와 고립의 벽을 넘고 허물어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할 수 있는 용기와 정의로운 제도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성경통독피정을 마치고

모든 이의 해방을 외치는 예언자가 되어

수련자 김누리 사무엘 수녀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길 따라 걷기

매서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던 지난겨울, 수련자들은 한 달간의 귀한 시간을 선물 받고 성경통독피정에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이 새 삶을 준비하려는 듯 한껏 움츠러든 겨울의 우고리, 산새들의 지저귀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은 수련자들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온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은근히 부러움의 눈빛을 보내는 언니 수녀님들과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본원 수녀님들께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 가득했기에 귀한 시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일었습니다.

성경통독 피정을 시작하며 제가 청한 은총은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단단하고 오래된 껍질을 깨고 나오기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세상의 불의와 가난 속에서 해방자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기를 청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과연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하는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설레는 희망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아, 해방이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성경을 읽으며 지금 이 시대의 이집트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우상과 탐욕의 노예 살이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를 섬기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탐욕의 사회에서 현대인은 돈의 노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예가 되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파라오의 양식 저장고인 피통과 라메세스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은 탐욕 때문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기에, 가족들의 하루를 책임져야 하기에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보시니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이후의 긴 역사 안에서 사람은 끊임 없이 서로에게 굴레를 씌우고 내적, 구조적, 관계적으로 억압하고 억압당하며 그 가운데 가난한 이들은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만물을 평등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계급을 만들어 내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신분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인간 위에 인간이 있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약자를 고통 받게 합니다.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지금의 현실 안에서 하느님은 그래도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수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시는” 하느님의 손길은 가난한 이들이 으쓱해지고 부유한 이들이 수모를 겪는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 창조질서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왜곡된 인간의 질서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비천한 이를 들어 높이시고 존대 받던 이를 낮추시어 모두가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해방이란 어떤 탈출이나 벗어남 보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가던 그 길 위에서 돌아서서 나에게 오라”는 그분의 간절한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이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해방의 길로 이끌어 내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 우상을 섬기며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 첫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느님의 해방은 “원천



으로 돌아감”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외침은 원천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하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찬란한 빛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이들 속에서 함께 고난 받고 울부짖는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생생한 현실로 비춰지고,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고통 받는 백성들의 삶이 보이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아픔을 온 가슴으로 껴안으시는 하느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무언가 쿵쿵 고동치는 강한 울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제는 내가 하느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새롭고 강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마주하면서 희망과 설렘과 함께 하느님과 세상 앞에서 내가 너무 작은 존재라는 두려움도 일어났습니다.

수련자들은 매일 오후 3시에 성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싶은 지향들을 칠판에 적어두고 공동전구 기도를 바쳤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향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 가난함이 있구나, 이렇게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절박함 속에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눈은 오래전에 쓰인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안에 이 시대의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의 얼굴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며 만난 예수님은 그 가난한 얼굴들에 살과 살을 맞대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고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구원 또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창조 때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병들고 신음하는 이들, 귀 먹고 말 못하는 이들, 손이 오그라들고 마귀 들린 이들에게 이것은 너의 원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원래의 너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평생을 죄인이라 스스로 탓하며 살아왔던 이들의 무너진 인간성이 회복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가난한 이들이 웃음 짓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면 어떤 틀도 어떤 전통도 어떤 권위도 넘어설 수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해방과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청년 예수, 그분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꿈과 예언과 회심

피정 마지막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는 나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게 엄마 탓이라고 하더니 긴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는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엄마의 편지에는 시가 적혀있었습니다. 아주 긴 내용이라 기억에 나는 것은 거의 없지

만 ‘엄마가 떠나간다’, ‘배고픈 도둑이 돌아온다’, ‘죽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반복적인 시 구절의 맨 마지막 문장은 엄마 글씨가 아니라 나의 글씨가 적혀있습니다. 글씨체를 보고서 아주 오래전에 써놓은 나의 글씨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살렘에 있는 성읍으로 예언자의 무리가 돌아온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아, 회심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나는 울고 있었고 뱃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렸습니다. 무의식을 뒤흔드는 감정 속에서 그 새벽녘 하느님을 찾으며 나의 밑바닥을 흔드시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부르신 하느님, 꼬마 때부터 수도생활의 꿈을 심어주신 하느님, 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느님, 그리고 오늘 나를 예언자의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느님... 모세처럼 두려워했고, 예레미야처럼 반항했고, 요나처럼 도망갈 궁리를 하기도 했지만, 그들처럼 나 역시 하느님의 손에 꼭 잡힌 사람이라는 것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간의 피정을 정리하면서 하느님이 내게 주신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예언자가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도성,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의 해방을 외치는 예언자가 되어! 성경 통독 피정은 끝났지만 나는 이 말씀을 오래도록 사유하고 기도하고 조금씩 조금씩 완성시켜 갈 것입니다.



엄마 밥 하느님 밥

수련자 이정미 기쁜 수녀



우리 엄마는 음식을 참 맛깔나게 잘 하신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님들도 엄마의 레시피와 맛의 비법을 묻곤 한다. 수녀원에 입회한 후 엄마의 손맛이 무척 그리웠을 때 쯤, 엄마가 도시락을 싸들고 수녀원에 면회를 왔다. 나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목이 딱 메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을 위한 음식으로서 만의 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너무나 사소한 나의 식성은 물론 어떤 음식, 어떤 방법으로 조리해야 내가 좋아할 지까지 너무 잘 알고 계셨다.

휴가를 나갔을 때도 언제나 나는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모양은 다 망가지더라도 “감자채”는 프라이팬에 꺾꺾 눌러서 살짝 타게 조리해준다. “찰밥”에는 언제나 김을 함께 준비해주고, 후식으로는 아직 덜 익어서 돌덩이처럼 아주 딱딱한 초록색 키위를, 간식은 초콜렛이 가득 든 촉촉한 초코칩 쿠키로, 엄마가 차려준 작은 밥상 앞에서 나

는 엄마의 섬세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엄마 밥을 먹으면서 “밥”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흔히 관심 있거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도 “밥 한번 먹자”고 하는 것은 밥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나눠지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밥 속에는 관계가 존재하고, 콩 한 쪽도 나눠먹는다는 속담처럼 “나눔”이 실현된다. 혼자서 밥 먹는 일이 많으면 사람이 우울해진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같은 맥락이라 여겨진다.

2년 수련 실습지로 멀리 밀양으로 파견을 받았다. 이곳에서 나는 또 다른 밥을 만난다. 처음 실습지 발표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거기에 계신 할매, 할배들이었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짐 챙기는 것보다 먼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으로 10년 넘게 싸워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나와 있는 글들을 읽기 시작했고, 간단하게 마을 지도를 그렸다.

지금은 그 책을 통해 미리 알게 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하고 있다. 이 땅을 지키고 싶은 뿐 보상금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서 편히 눈 감고 싶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였을까. 아니면 오랜 인생을 살아오시고 강한 투쟁으로 전사가 되어 계신 까닭이었을까. 처음 만남부터 뭘지 모를 거대한 기운이 느껴졌고, 그 기운에 나는 어떻게 있어야할지조차 몰라 더듬더듬 거리며 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할매 할배들을 만나 뵈면서 어떻게 저렇게 긴 시간동안 여전히 단호한 마음과 열정을 갖고 투쟁을 이어가실 수 있을까 생각했다. 옆에서 바라보니 그 이유는 “간절함”이었다. “우리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 “앞으로 이 땅을 살게 될 후손들에게 위험하고 흉칙한 괴물을 남겨주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함”에 지금도 어르신들은 역사에 남을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신다. 백성의 죄 때문에,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소명을 수행해 남아있는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었던 구약의 모세처럼, 밀양 할매 할배들은 나에게 예언자적 삶으로 “간절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생생한 현장 속에서 몸소 가르쳐주셨다.

또 다른 날은 밀양시 단장면 서남쪽 변두리에 위치한 오지로 지대가 높은 산촌 마을 감물리 마을 회관에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한다. 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반찬을 함께 먹고자 가져오시는데 그렇게 반찬들이 모이면 다양하고 풍요로운 식탁이 되고, 둘러앉아 있으면 도시에서는 결코 보기 힘든 대가족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할머니





들과 함께 먹는 밥이 나에겐 또 다른 엄마 밥이다. 이렇게 함께 맛있게 먹다보면 홀로 사는 할머니도 “♫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부르며 외로움을 함께 달래고 웃으신다. 덕분에 나는 할머니들의 노래를 배우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댄다.

딱히 무언가 잘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처음이라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 낯 설었던 내게 “아이고 내는 젊은 사람이 여기 오면 그래 좋다이~” 하시며 환한 웃음으로 젊은 기운을 느끼려하셨던 어르신 한마디에 나 또한 힘이 불끈 생기기도 했다. 변두리 밀양 감물 마을, 생태학습관에 실습 온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지금,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달래꽃을 따먹었다. 처음 맛본 진분홍빛 진달래꽃 맛은 달달하고 깨끗했다. 밀양의 맑은 공기, 감물 마을 밤하늘에 뜨는 별빛,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는 밀양 할매들의 푸근한 사투리가 배어있는 진달래꽃잎은 어쩌면 하느님 밥인지도 모르겠다. 요즘 한 며칠 계속해서 복음은 생명의 빵에 대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날마다 나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고 있다.

살아오면서 먹은 많은 밥들을 떠올려 본다. 나의 식성을 가장 잘 알고 챙겨주신 엄마 밥, 가난하지만 함께 모여 나누어 먹는 밀양 할매들의 밥, 선배 수녀님들과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기쁨과 합심의 밥, 산천에 절로 피어나는 온갖 채소와 열매와 꽃잎으로 차려놓으신 하느님 밥, 그리고 매일 매일 당신의 삶과 피를 내어주시는 성체의 식탁에서 모시는 예수님 밥, 이 밥을 먹고 자랐고, 이 밥으로 튼튼하게 성장하고, 이 밥의 힘으로 오늘도 살고 있다. 이제 나도 세상을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밥상을 차려야 할 때가 되었다. 나 또한 누군가의 밥이 되어 바쁘게 돌아가는 삶에서 마음속 공허가 가득한 이들의 영혼을 채워주는 친구가 되고 싶다.

봄비가 종일 내리던 날.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발견했다. 땅이 머금은 빗물은 농촌 마을에서는 특히 반가운 손님이고 자연의 순환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음을. 저 비가 땅을 적시고 그 젖은 땅의 물기로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우리의 밥상에 한 그릇 밥으로 올려 진다. 그 밥을 먹은 나는 무엇을 자연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까? 사랑하는 일일 것이다. 자연과 세상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 잠자기 전 빨감을 아궁이에 넣고 활활 불을 지피며 기도했다. 재속에 있는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보내달라고.

여기까지 소명을 사신 이들

성가소비녀의 삶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의정부관구 성소 모임

모임	대상	일시	장소	연락처
흰나리 모임	미혼 여성	매월 3주(일) 14:00	성가소비녀회 총원(4호선 길음역)	010-6357-5806
나자렛 모임	여 중고생	매월 3주(토) 14:30		010-6357-5806
YJ 기도모임	남녀 청년	매월 1주(토) 14:00	광적면 우고리 관구 본원	010-8570-8641
		매월 2주(수) 19:00	총원(4호선 길음역)	010-6357-5806
		매월 끝(토) 14:00	총원(4호선 길음역)	010-8570-8641

의정부 관구 성소 담당 : 조 나자레나 수녀
nazarena@naver.com 010-6357-5806 / 02)940-5933
YJ모임담당 : 권 희바르바라 수녀 010-8570-8641

인천관구 성소 모임

모임	대상	일시	장소	연락처
꽃숨N모임	중고등학교 여학생	매월 1회	부천 관구본원	010-3476-5801
			광주 비아본원	010-3699-4473
꽃숨 성소 모임	35세미만의 미혼 남녀	매월 1회	부천 관구본원	010-3476-5801
			광주 비아본원	010-3699-4473
꽃숨 청년 기도모임	35세미만의 미혼 남녀	매월 1회	부천 관구본원	010-3476-5801
			대전 대동성당	010-4193-2042

인천 관구 성소 담당 : 김 오상비오 수녀
Osangpio@hanmail.net 010-3476-5801 / 032)653-5801